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2011년 10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집위원장 남궁영 · 성태규

편집위원 윤영우, 임재영, 고석철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임형빈, 김윤아

경제일지 김석필, 박용진, 김범수

외부집필진 강신재(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하광학(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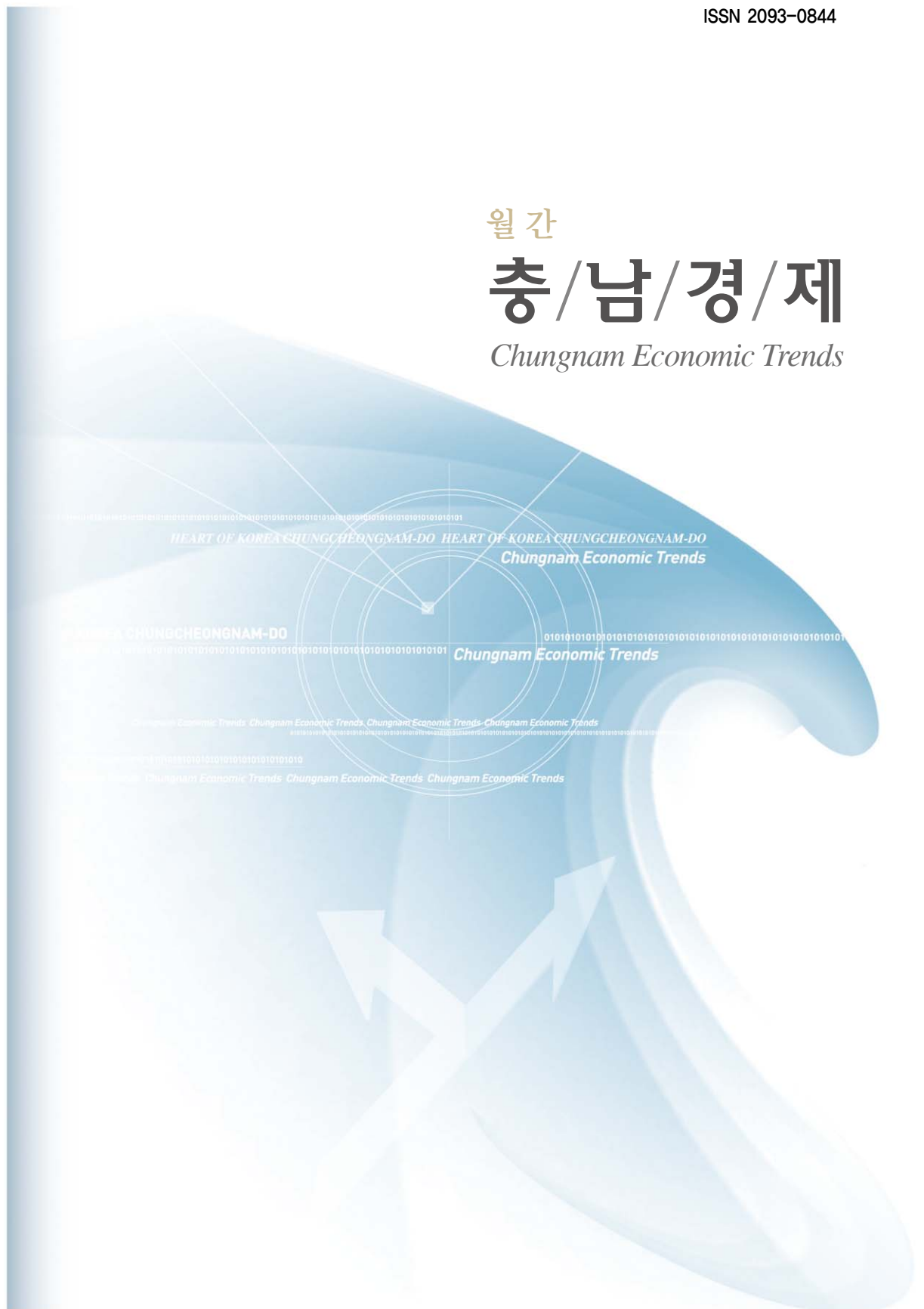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3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19
기업탐방	(주)우리황토	31
경제동향	경제동향 (요약)	41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 물가	7. 건설 · 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63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71
	2. 충남 주요경제지표	73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5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90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92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¹⁾

강 신 재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1. 머리말

- 지금 세계는 국가에서 지역으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메가트렌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이 같은 세계적 추세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 MB정부는 지역간의 협력과 분쟁, 분권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신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그리고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하는 '5+2 광역경제권'을 출범시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광역경제권이 출범하였지만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광역경제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광역경제권 전체를 포괄하는 산업경제 자료의 조사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충청광역경제권의 경우도 3개 시·도는 개별적으로 산업경제 자료의 관리, 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전, 충북, 충남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산업경제 현황 및 발전 여건을 조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에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발전 전략수립에 필요한 산업경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에 관한 통계기반의 기초 조사 연구'를 추진하였음

1) 2010년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기획 연구과제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에 관한 통계기반의 기초 조사 연구' 내용을 인용 또는 재정리한 것임.

- 연구의 주 내용은 충청광역경제권 경제·산업 현황, 충청권 산업경제의 성장요인 및 구조적 특성, 충청권 지역산업의 연관구조 그리고 충청권 산업의 현황 통계지표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들을 본고에 간단히 기술 또는 요약함

2. 충청광역경제권 경제·산업 현황

1) 충청권 지역경제 일반 현황

① 지역내 총생산(GRDP)

- 충청권의 지역내총생산(2009)은 전국대비 11.4%로 그 액수는 121조 8,470억원이며 산업구조면에서 서비스업(49.4%)과 제조업(36.6%)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전의 지역내총생산(2009)은 충청권 대비 20.0%의 비중으로 그 액수는 24조 4,049억원이며 산업구조면에서 서비스업(76.5%), 제조업(15.4%), 농림어업(0.2%), 광업(0.01%) 순의 비중을 차지함
- 충북의 지역내총생산(2009)은 충청권 대비 26.0%의 비중으로 그 액수는 31조 6,826억원이며 산업구조면에서 서비스업(51.4%), 제조업(34.0%), 농림어업(4.8%), 광업(0.6%) 순의 비중임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2009)은 충청권 대비 54.0%의 비중으로 그 액수는 65조 7,600억원이며 산업구조면에서 제조업(45.7%), 서비스업(38.4%), 농림어업(5.1%), 광업(0.3%) 순의 비중임

② 인구(Population)

- 충청권의 인구(2010)는 512만 4,962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10.2%를 차지하며, 남녀의 구성비는 남자 5.1%, 여자 5.0%로 남자가 3만 9,91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의 인구(2010)는 150만 3,563명, 충북의 인구(2010)는 154만 7,720명, 충남의 인구(2010)는 207만 3,679명으로 시현됨

③ 고용(Employment)

- 대전의 고용률(2010)은 57.8%로 전국값 59.2%보다 낮으며, 실업률은 2.8%로 전국 3.0%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고용률(2010)은 59.9%로 전국값 59.2%와 비슷하며, 실업률은 2.1%로 전국 3.0%보다 낮은 것으로 보임
- 충남의 고용률(2010)은 61.3%로 전국값 59.2%보다 약간 높으며, 실업률은 2.4%로 전국 3.0%보다 낮은 것으로 시현됨

3. 충청권 산업경제의 성장요인 및 구조적 특성²⁾

1) 충청권 지역경제의 성장 추세

(1) 지역경제 규모의 성장 추세³⁾

① 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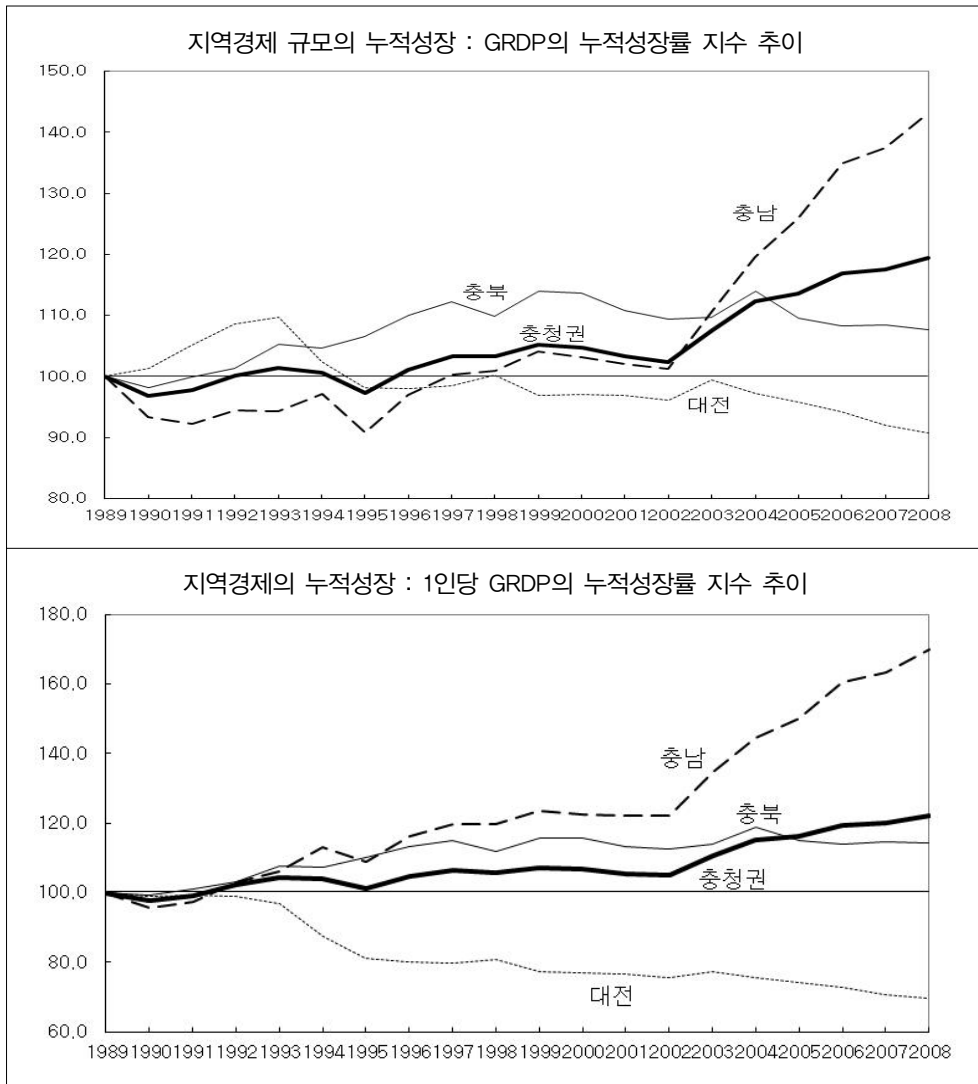
- <그림 1>의 상단을 통해 지역경제 총량규모의 누적 성장인 GRDP의 누적성장률 지수를 살펴보면 충청권은 199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성장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국 평균 이상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대전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국 평균 이하의 성장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2004년 이후 그 성장 추세가 반전되어 하향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국 평균이상의 성장 추세임

2) 통계상의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그 요인을 규명하여야 했으나 연구과제의 수행이 산업 통계·조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해석·요인을 다방면에서 밝히지 못함.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후속 사업으로 개별산업 조사·분석시 이와 연계할 예정임.

3) 충청광역경제권 지역경제의 성장 추세를 전국의 성장추세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누적 성장률 지수를 이용함.

- 충남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는 추세 행보에 1997년 이후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 추세를 시현하였고, 2002년 이후부터 그 성장 추세가 매우 폭발적일 수 있을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충청권의 경제 규모와 지역경제의 누적성장 추이



주 : 2005년 불변가격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기준임.

출처 : 통계청, www.kosis.kr.

② 1인당 GRDP

- <그림 1>의 하단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질적 누적성장을 나타내는 1인당 GRDP의 누적성장률을 살펴보면, 충청권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충남의 영향으로 그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총량규모의 누적성장 추세와 유사한 행보로 나타나고 있음
- 대전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국 평균 이하의 성장 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하향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충북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이후 성장 추세가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1998년 이후 그 추세는 사실상 횡보하는 형태를 나타내 주고 있음
- 충남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 추세 행보 속에 2002년 이후에는 그 성장 추세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상태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충청권 전체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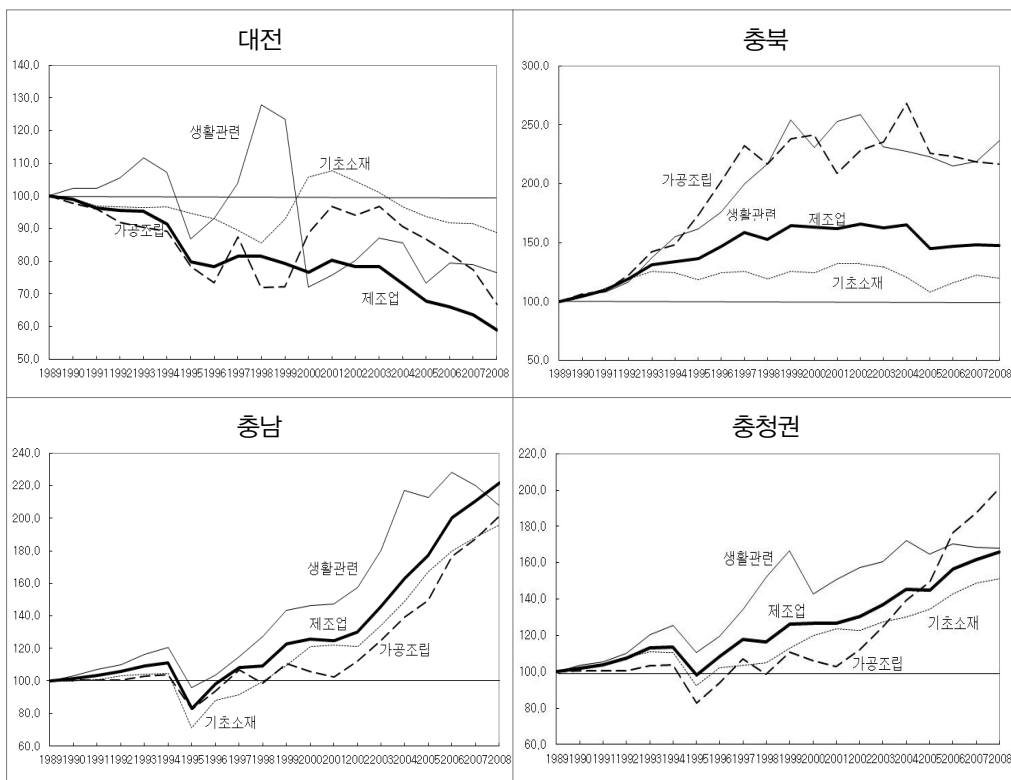
(2) 제조업의 성장 추세

- <그림 2>는 충청권의 제조업과 그 산업의 유형별, 지역별 성장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북, 충남은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전은 하향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충청권의 제조업은 상승세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 충청권의 제조업 성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침체기를 겪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기초소재, 생활관련, 가공조립 산업도 전반적으로 가파른 행보를 보이며, 특히 2001년 이후 가공조립 산업의 상승세가 제일 가파르게 나타남
- 대전의 제조업 성장은 연속적으로 하향 추세이며,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기초소재, 가공조립 산업이 상승 추세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모든 유형의 제조업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이하의 성장 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 충북 경우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중반까지 제조업 성장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횡보하는 형태이며 기초소재 산업 또한 1990년 초반부터 그 성장

세가 계속 횡보하는 추세임. 그러나 가공조립, 생활관련 산업이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충남의 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에 일시적인 성장 침체기를 겪다가 그 이후 모든 유형의 제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활관련 산업은 최근에 다소 하락 추세이며 기초소재, 가공조립 산업은 2000년대 초반이후 매우 가파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충청권의 제조업 누적성장률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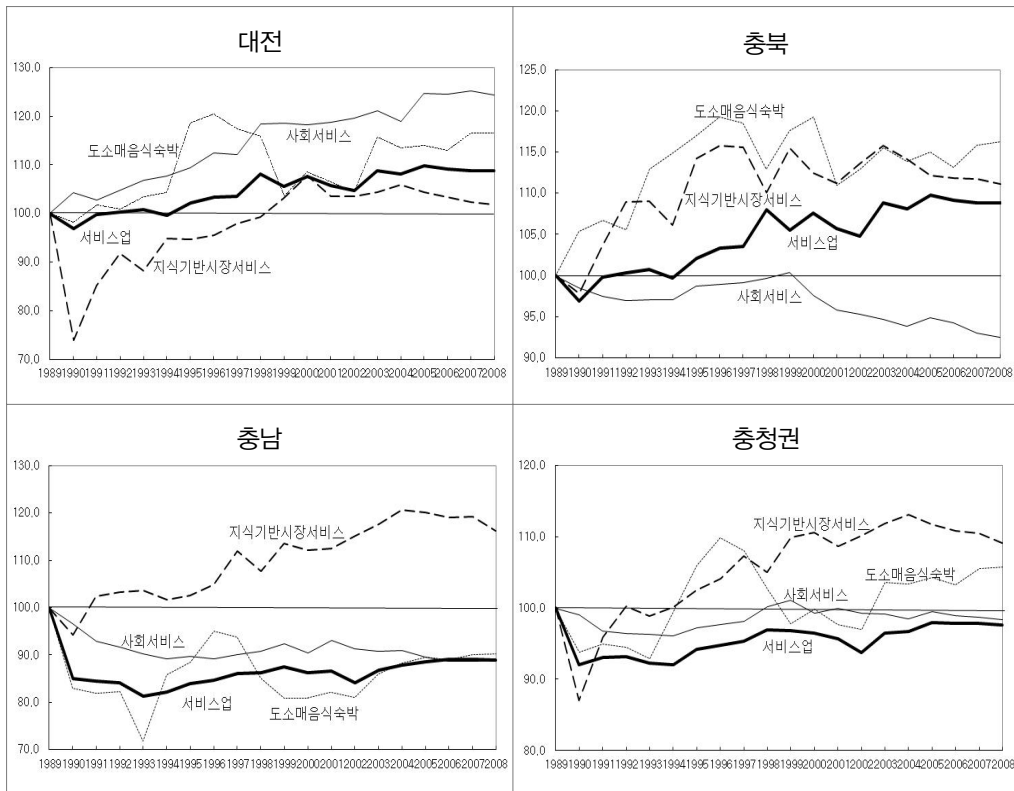
주 : 2005년 불변가격 지역 내 총부가가치 기준임.

출처 : 통계청, www.kosis.kr.

(3) 서비스업의 성장 추세

- <그림 3>은 서비스업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조업의 그것과는 상이한 성장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 충청권의 서비스업 누적성장률 지수 추이



주 : 2005년 불변가격 지역 내 총부가가치 기준임.

출처 : 통계청, www.kosis.kr.

- 충청권 서비스업의 성장세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⁴⁾, 도소매음식숙박과 사회서비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나마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⁵⁾
- 대전의 경우 제조업의 성장 유형과 달리 다른 광역대도시처럼 서비스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세로 행보하고 있음.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성장세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그것은 꾸준한 성장세의 횡보가운데

4) 충청권이 서비스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서비스사업 발달지역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과의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이유이며 또한 수도권에 아닌 지방에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사군과 같이 비도시지역이 대분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 적기 때문임. 한편 충청권의 중심 도시인 대전은 부산, 대구, 광주와 비교하여 도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충청권의 2위, 3위 도시인 천안, 청주 등도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도시이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5) 이는 대덕연구단지, 각종 정부출연연구소의 집적, 다수 대학의 입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에 따른 부동산, 사업 서비스업 등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전국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3년 이후 그 성장 추세가 다소 하강하는 형태를 시현하고 있음

- 충북의 서비스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등락이 있지만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남⁶⁾
- 충남의 경우 서비스업의 성장세는 전국 평균 이하이고, 1990년대 초반 이후 완만하게나마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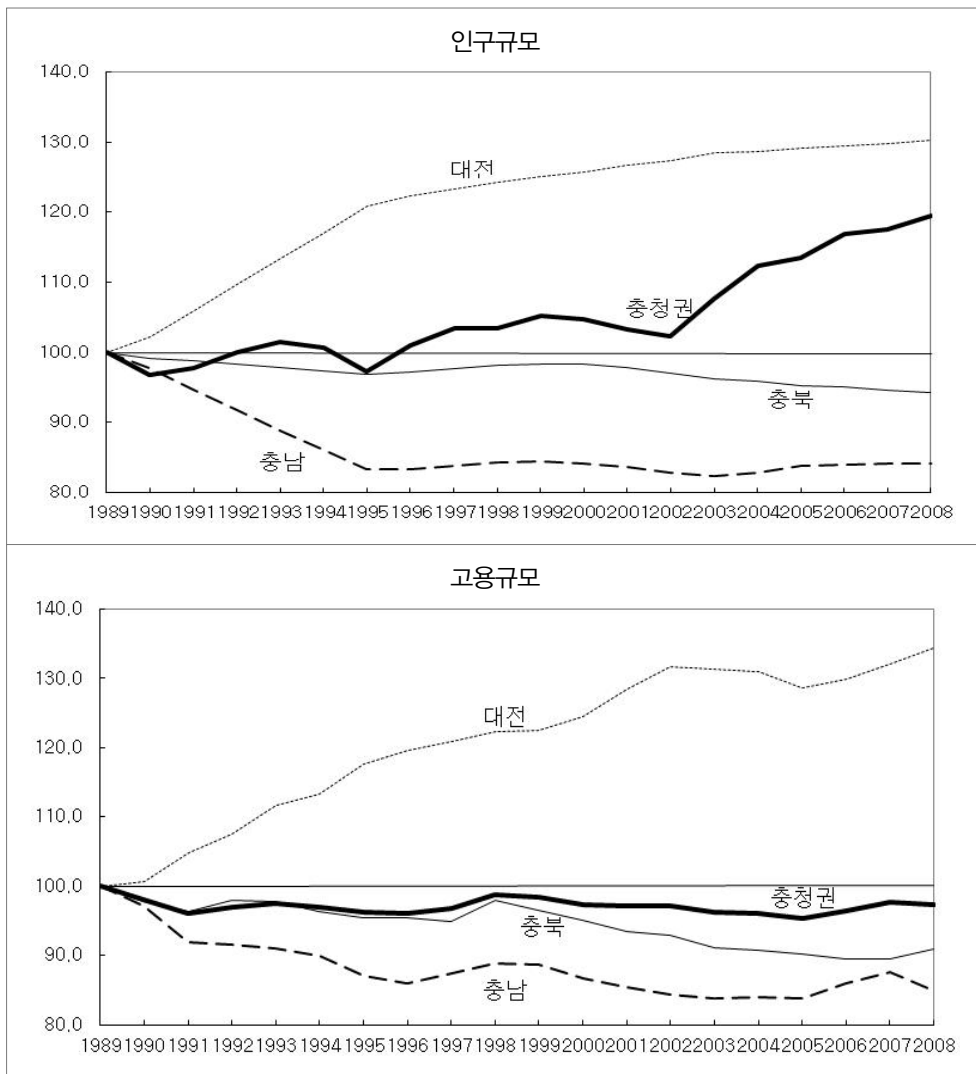
(4) 인구 및 고용규모의 성장 추세⁷⁾

- 충청권의 경우 인구규모는 1995년과 2002년이 인구성장의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그 성장세가 다소 가파름. 반면 고용 성장세는 전국 평균 이하이고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줌
- 대전의 경우 인구규모, 고용규모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는 인구규모, 고용규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의 성장세를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충남의 경우 인구규모, 고용규모 모두 199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 이하의 성장세로 가팔랐지만, 그 이후 횡보하는 양상임
- 고용규모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인구의 그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권의 고용 성장세는 전국 평균 이하로 그 추세는 전반적으로 횡보의 형태를 보여줌
- 대전의 경우는 2002년까지 전국 평균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다소 침체하다가 최근 상승세의 추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충북과 충남은 전국 평균 이하의 하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충북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충남은 다소 반등했다가 다시 하향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6) 지면 제약으로 충북, 충남의 도소매음식숙박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그 성장추세 설명을 생략. <그림 3>을 통해 그 성장 추세를 유추할 수 있음.

7) 인구와 고용규모의 누적성장율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수요기반 정도를 가늠하고자 함.

〈그림 4〉 충청권의 인구와 고용규모의 누적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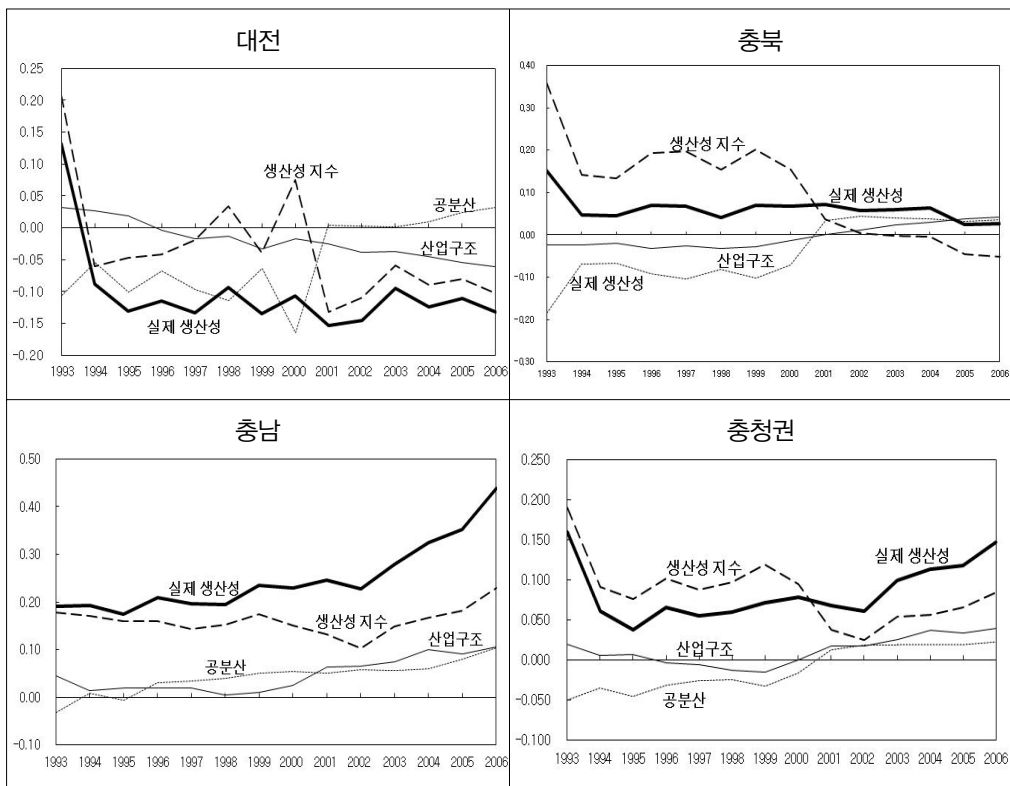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www.kosis.kr.

2)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

- <그림 5>는 충청권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의 노동생산성은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1995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이고, 2002년을 기점으로 그 상승세가 가파르게 시현됨
- 이러한 성장 추세는 주로 1990년대 후반까지는 생산성 지수 요인에 기인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산업구조의 요인에 기인함

- 2000년대 이후 지표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대전의 노동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년도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노동생산성의 추이가 일부 변동이 있지만 횡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이상을 시현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전국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추세는 2002년 이후 매우 가파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충청권 노동생산성의 요인분해 : 각 요인들의 추이



주 : 2005년 불변가격 지역 내 총부가가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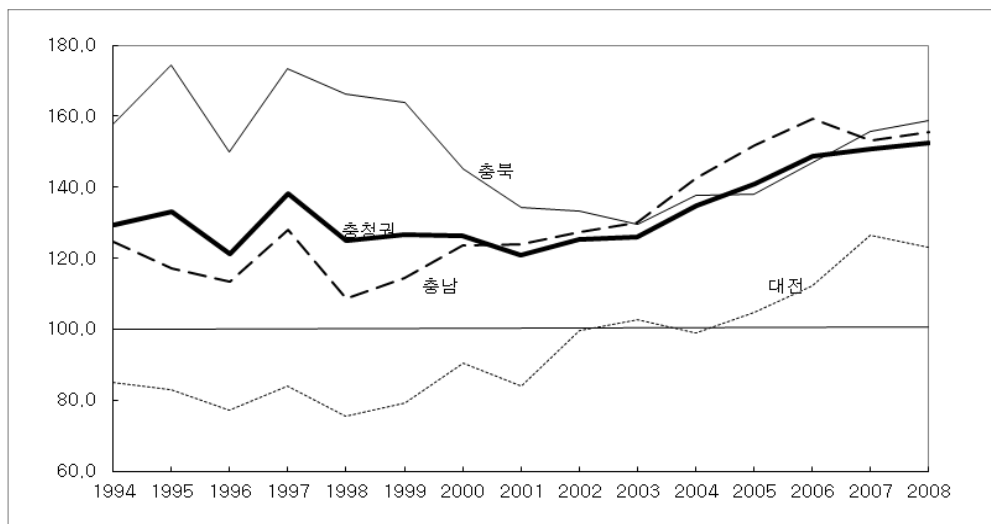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www.kosis.kr.

3)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 수준 평가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화 지수

- <그림 6>을 통해 충청권의 제조업 지식기반산업화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이며,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충청권이 지식기반제조업의 유망한 입지로 부각되어 있음
 - 이는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 경제 부상에 따른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입지적 선호, 수도권과의 인접성, 국토 정중앙에 위치한 공간적 접근성의 우위, 참여정부 시절의 지역정책의 효과 등에서 그 기인을 찾을 수 있음
- 대전의 경우는 1998년 이후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제조업의 지식기반산업화의 추세는 상승하고 있으며, 2004년을 전후로 그 추세는 전국 평균 이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충북 및 충남경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그 추세가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로 시현됨

〈그림 6〉 전국대비 충청권의 지식기반산업화 지수 추이 :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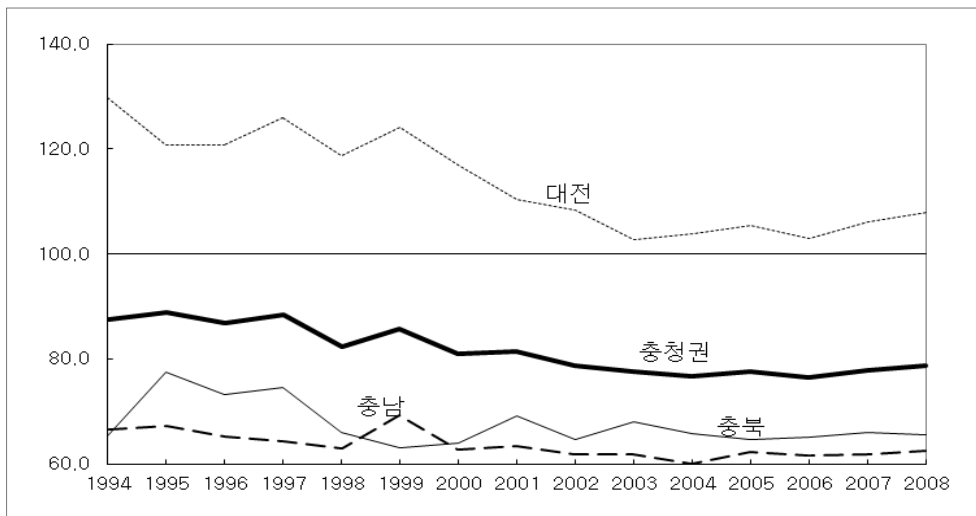
주 : 지식기반제조업 지수는 전국대비 제조업비중으로 가중평균하기 이전의 지수 값임.

출처 : 통계청, 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www.kosis.kr.

(2)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지수

- <그림 7>은 충청권의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추세를 보여주는 경우로 그 형태가 제조업의 경우와는 달리 나타남. 대전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추세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추세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의 입지로서는 충청권은 유망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대도시 입지를 지향하는 특성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입지적 특성이 반영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7〉 전국대비 충청권의 지식기반산업화 지수 추이 : 서비스업



주 :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수는 전국대비 제조업비중으로 가중평균하기 이전의 지수 값임.

출처 : 통계청, 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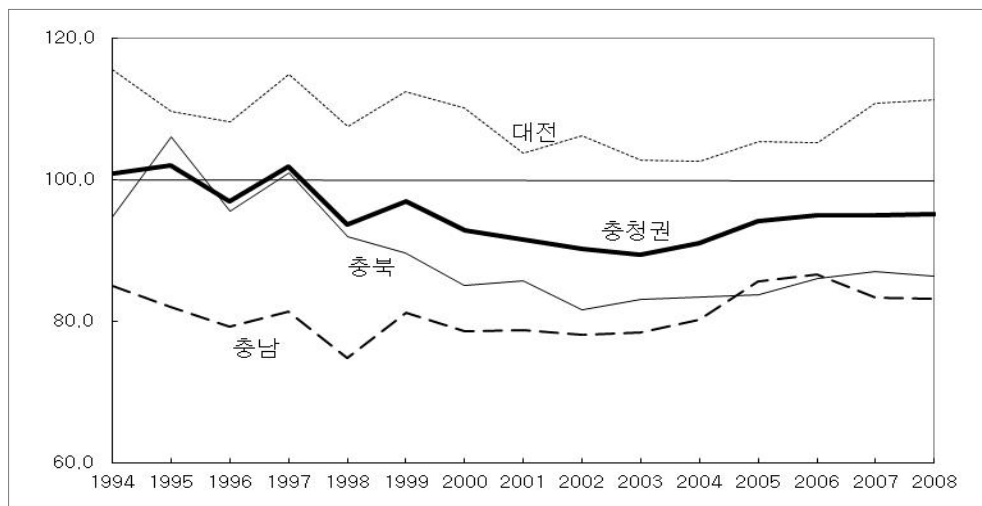
- 충북의 경우에는 1999년까지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가 2005년까지 등락을 거듭한 후 회복하는 추세임
- 충남의 경우에는 1999년을 제외하면 2004년까지 완만하게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소폭 증가하여 회복하는 추세임

- 대전의 경우 충북, 충남과 달리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2003년까지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산업화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그 이후에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반전 추세임

(4) 전국대비 지식기반 산업화 지수 및 분석 종합

- <그림 8>은 종합적(제조업과 서비스업중 가중평균)인 지식기반산업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청권은 1990년 초반 약간의 변동을 제외하고 2003년까지 전국 평균 이하의 하향추세이나 그 이후 소폭 반전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충청권 제조업의 경우 전국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그와는 대조적이고,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의 그것보다 매우 높아 종합지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
- 충청권의 지식기반산업화의 전체 추세는 2003년을 기점으로 점차 전국 평균에 접근하고는 있으나 제조업과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추세가 미약하여 그 증가세는 완만한 것으로 시현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충청권의 지식기반산업화의 정도는 전국 평균 이하이어서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산업기반과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임

〈그림 8〉 전국대비 충청권의 지식기반산업화 지수 추이 : 전체



주 : 지식기반산업화지수는 각각 전국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 값임.

출처 : 통계청, 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www.kosis.kr.

- 대전은 서비스업, 충남과 충북은 제조업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지식기반산업화가 시현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보면 충청권 내에서 대전이 지식기반산업화의 중추지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
 - 충청권 내에서도 공간분업 형태가 나타나 대전이 구상기능을 담당하고, 그 외 지역이 실행(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산업화 추세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함

4.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연관구조⁸⁾

1) 충청권 핵심산업군의 전후방연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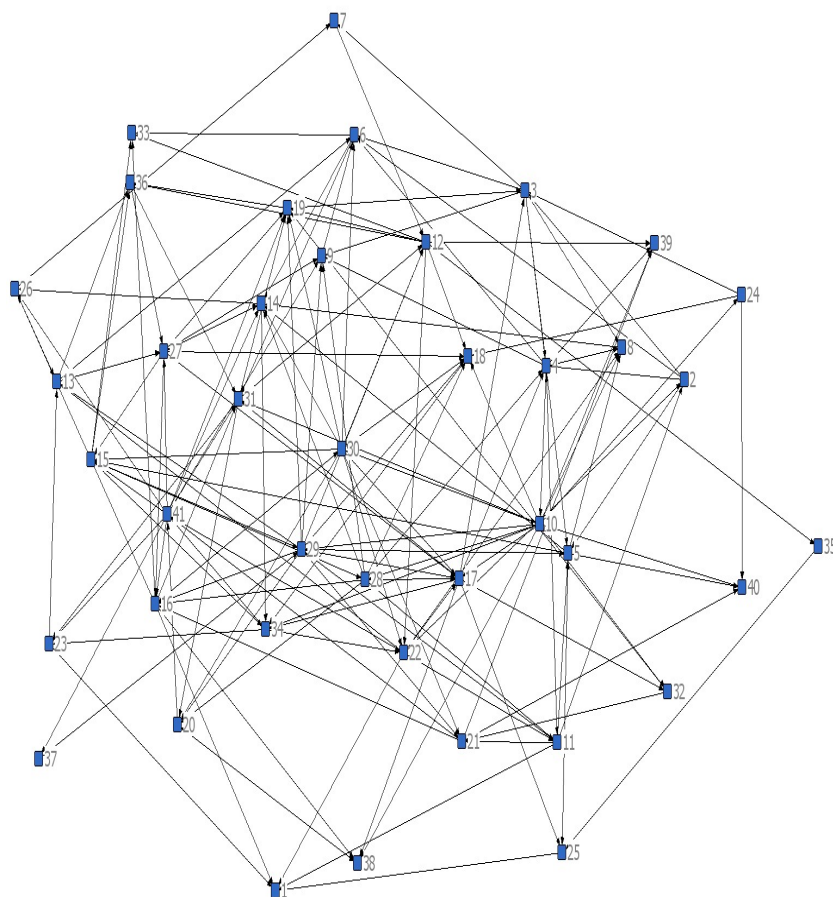
- 지역산업의 연관구조 분석⁹⁾ 결과 충청권의 핵심 산업군은 무선통신기기산업군, 디스플레이산업군, 정밀화학산업군, 메카트로닉스산업군으로 도출됨. 이들 핵심 산업군에 해당하는 산업연관표의 50개 부문을 대상으로 충청권 지역산업의 연구조를 분석함(<그림 9> 참조)
- 충청권 지역산업에서 후방(구매) 연계구조상의 결절부문은 석유화학기초제품, 석유화학중간제품, 기타기초유기화합물, 기초무기화합물, 산업용플라스틱제품, 산업용유리제품, 동1차제품, 기타금속제품, 금형및주형, 전기공급및제어장치, 디지털표시장치, 개별소자, 집적회로(IC), 인쇄회로기판, 기타전자부품, 기타공학관련서비스가 해당함
 - 산업용플라스틱제품, 기타공학관련서비스, 인쇄회로기판, 집적회로 등의 결절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후방 연관산업을 제시하였음
- 전방(판매) 연계구조상의 결절부문은 석유화학중간제품, 기타기초유기화합물, 합성수지, 의약품, 화장품및치약, 산업용플라스틱제품, 기타금속제품, 전기공급및제어장치, 전구램프및조명장치, 디지털표시장치, 집적회로(IC), TV, 기타영상및음향기

8) 글로벌 가치사슬의 모듈화 추세가 산업 전반에서 걸쳐 진전되는 경제 환경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듈단위의 특성화와 모듈단위 간의 연계를 의미하는 클러스터 연계체제 구축이 중요함. 즉, 광역 선도산업, 시·도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은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의 현황 및 구조 진단의 분석 방법론으로 지역산업의 전후방 산업연관구조 분석이 강조되고 있음.

9) 지역산업의 연관구조 분석은 충청권 지역산업의 핵심 산업군을 도출하고 충청권 핵심산업군으로 정의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전후방연관구조와 결절 산업부문을 도출함.

- 기,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승용차가 해당됨
- 무선통신단말기, 디지털표시장치, 컴퓨터및주변기기, 승용차 등의 결절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방 연관산업을 제시하였음

〈그림 9〉 충청권 주요산업의 후방(구매) 연계구조



[산업부문명]

1 (석유화학기초제품), 2 (석유화학중간제품), 3 (기타기초유기화합물), 4 (기초무기화합물), 5 (합성수지), 6 (농약), 7 (의약품), 8 (화장품및치약), 9 (산업용플라스틱제품), 10 (판유리및1차유리), 11 (산업용유리제품), 12 (냉간압연강재), 13 (연및아연괴), 14 (동1차제품), 15 (기타금속제품), 16 (금형및주형), 17 (반도체제조용기계), 18 (기타특수목적용기계), 19 (기타전기변환장치), 20 (전기공급및제어장치), 21 (전지), 22 (전구램프및조명장치), 23 (기타 전기장치), 24 (전자관), 25 (디지털표시장치), 26 (개별소자), 27 (집적회로(IC)), 28 (인쇄회로기판), 29 (기타전자부품), 30 (TV), 31 (음향기기), 32 (기타영상및음향기기), 33 (무선통신단말기), 34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35 (컴퓨터및주변기기), 36 (기타광학기계), 37 (승용차), 38 (통신시설), 39 (기타공학관련서비스), 40 (의료및보건(산업)), 41 (이용및미용)

5. 기타

- 충청권 30대 제조업¹⁰⁾ 2008년 입지계수 상에서 사업체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특화도를 보인 제조업은 ‘석유화학(3.27)’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자부품(6.15)’이 가장 높게 보임
 - 대전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준에서 각각 ‘정밀기기(4.12)와 고무제조업(6.29)’에서 높은 특화도가 나타났음
 - 충북은 사업체수 종사자 기준에서 각각 ‘석유화학(3.77)과 음식료(2.77)’에서 높은 특화도를 지님
 - 충남은 사업체수 종사자 기준에서 각각 ‘석유화학(2.86)과 전자부품(11.25)’에서 높은 특화도를 시현함
- 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산재된 통계를 취합 및 재정리한 결과 16대 서비스업 분류기준으로 2008년도 사업체수는 298,722개로 전국 대비 10.2%의 비중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수에서는 1,199,716명으로 전국대비 9.3%의 비중을 차지함
- 2009년 기준 충청권의 농가수는 250,747가구(호)로 전국 1,194,715가구(호)에 대비 20.1%의 비중임. 개인농가의 인구는 712,727명으로 전국 3,117,322명 대비 20.8% 비중을 차지함
 - 충청권 내에서는 충남이 가장 많은 158,529호의 농가수와 417,313명의 농가인수를 나타냄
- 논벼의 재배면적은 감소추세로 전국적인 추세와 같지만 벼생산량은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도 벼생산량은 1,177,765톤으로 전국대비 24.0%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한편, 어업가구와 어가인구는 전국적으로도 감소추세이며, 충청권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추세임
 - 11,132가구(호)로 전국 대비 16.0%의 비중이며, 어가인구는 28,537명으로 전국 대비 15.5%의 비중을 보임

10) 산업연구원 제공 30대 제조업 분류기준임.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하 광 학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교역운영부장

1.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관

지난 2009년 8월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기로 최초 결정된 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타당성 연구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행사의 승인과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 등 절차를 마무리 한 후 2010년 8월에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공식 행사 명칭은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2011 World Ginseng Expo, Geumsan, Korea)로 하고, 2011.9.2~10.3까지(32일간)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행사장 규모는 총 362,857m²(주행사장 220,708m², 부행사장 142,149m²)이며 약 135억원을 투자하여 전시연출, 공연 및 이벤트, 학술교역, 체험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인삼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체험활동을 통한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효능을 널리 알리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수출시장의 확대는 물론 인삼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인삼산업의 활력을 도모코자 노력했다.

즉, 고려인삼의 성과와 브랜드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옛 영광이 재현되었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산업박람회 성격의 행사가 되도록 준비했다.

2. 이루어 낸 주요성과

1) 정량적 성과

(1) 관람객 유치목표 초과달성

목표관람객 229만명 대비 114.3%인 262만명(내국인258만명, 외국인 3만8천명)이 금번 엑스포장과 인삼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일 평균 81,000명 정도가 방문한 셈이다. 2006년 엑스포 당시엔 총 19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79,100명임을 감안할 때 금번 엑스포의 관람객 유치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국제인삼 교역전을 통한 수출상담

인삼엑스포 행사기간 중 지난 9.21일 금산다락원 스포츠센터에서 해외바이어 15개국 85명을 초청하여 국내기업 59개 업체와 수출상담을 실시하였다. 당초에 수출상담 목표는 3,500만불로 예상했으나 상담결과 382건, 5,082만불로 145%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바이어 관심업체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했으며 업체간 사전 정보교류를 통해 수출상담액을 제고시킨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3) 다양한 수익사업

수익사업의 경우 총 4,691백만의 성과를 거두었는바 이는 입장권 2,666백만원, 임대사업 328백만원, 회장사업 1,102백만원, 협찬사업 595백만원 등으로 당초 조직위원회에서 예상한 수익사업 목표액 3,425백만원보다 137%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2006년도 인삼엑스포 당시에는 총 4,027백만원의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4) 경제적 파급효과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현지조사 활동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지역경제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4,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숙박, 식음료, 교통비, 쇼핑 등)을 근거로 추산한 수치이다(부가가치 파급효과는 추계중). 이밖에도 수삼시장 등 지역상권 재편을 통한 유통질서 선진화와 세계인들의 욕구에 충족할 다양한 제품개발 동기부여 등을 들 수 있다.

2) 정성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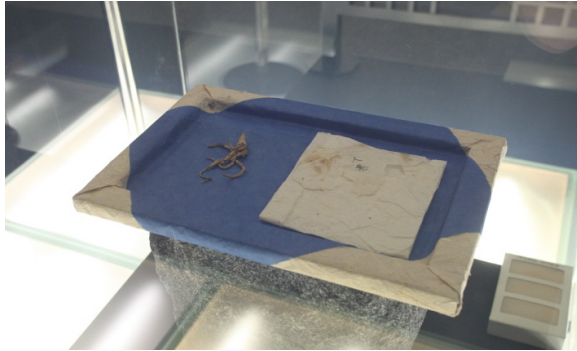
첫째로 천년인삼을 엑스포 기간 동안 전시함으로써 고려인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와 효능 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천년인삼은 지난해 부산 원광사에서 발견되어 그동안 동아대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오던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 끝에 인삼엑스포기간동안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참고로 천년인삼은 현재 문화재청에 보물로 신청되어 심의단계에 있다.

둘째로 문화축제와 비즈니스가 하나 되어 빛어낸 산업박람회로 승화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행사기간동안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효능에 대한 학술 및 산업적 기반구축은 물론 해외 바이어(15개국 85명)를 대거 초청하여 수출상담 활동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노린 점이다.

셋째로 과거 장년층에서 벗어나 어린이나 청소년층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인삼수요의 저변확대를 도모했다는 점이다. 엑스포장을 찾은 관람객 중 어린이나 청소년층의 높은 참여(33.7%)는 이번행사를 통해서 그들이

인삼과 더욱 친근해 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인삼산업의 범위를 과거 약재 또는 건강식품에서 이제는 인삼이 세계인의 트렌드인 건강·웰빙식품으로 발전시켜야 할 생명산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인삼의 다양한 제품개발과 전시를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촉진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천년인삼

3. 아쉬웠던 점

(1)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관심부족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고려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지방 차원에서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여 일구어 낸 국제행사였다고 본다. 반면 정부에서는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금번 인삼엑스포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고려인삼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출은 점차 줄어들고 생산원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등 인삼업체의 이중고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이 손을 맞잡고 뛰어도 시원치 않은 현실임을 감안할 때 매우 아쉬웠던 점으로 생각된다.

(2) 국제적 성격의 행사에는 한계

행사기간 중 외국인들이 38,177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관람객의 약 1.4%이며 목표관람객(36,000명) 대비 106.1%로 나타났다. 물론 계획했던 목표인원은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인삼엑스포 성격과는 거리감이 있었던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체험이벤트 등도 준비했다더라면 귀국한 후에라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전국의 인삼조합 참여저조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분명히 금산지역에만 국한된 행사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고려인삼의 단합된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 고려인삼을 대변하는 국제행사임에도 마치 금산지역만의 축제로 모두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든다. 지난 6월경에 전국 12명의 인삼조합장들이 모두 모여 금번 인삼엑스포행사에 참여키로 결의해 놓고 행사가 시작될 즈음에서 금산지역의 인삼농협을 제외하고 모두가 참여치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긴 행사였다. 후문에 의하면 “타도 금산인삼” 또는 “금산잔치에 왜 우리가 빛내줄 일이 있는가” 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4) 인삼유통 상인들의 협조결여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채긴다” 는 격언이 있다. 인삼엑스포를 위해 행사기간 내내 인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해주었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행사준비 도중 갖가지 협조사항에 대해 인삼업계와 논의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인삼엑스포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인삼상인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마케팅 역할이 절실하며 이제부터는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고 본다.

(5) 너무 촉박한 행사준비기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가 2010년 8월말에 6명의 정원으로 발족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원보강을 통해 2011년 1월중에 완전한 조직위원회가 탄생되었다. 실제로 준비기간은 약 1년 정도에 불과하다. 금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개발 및 회장조성 등 여러 분야에 있어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실제로 국제인삼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국내외 인삼전문가, 석학들로부터 행사직전에 겨우 취합하기 급급한 실정이었던 것으로 보면 주옥같은 논문을 기대하기엔 요원하기만 했던 행사로 기억된다.

이런 국제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대다수 행사가 그랬듯이 적어도 2년은 준비되어야 제대로 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인삼엑스포도 2년이 넘게 걸쳐 준비되었다. 금번 행사는 너무 급조된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현 실태

고려인삼은 예로부터 한국의 문화상징 Best10(문광부), 세계일류상품55(산자부), 한국일류상품10선(삼성경제연구원), 외국인이 연상하는 한국의 대표상품3(관광공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일컬어 왔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인삼시장이라고 하는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는 고려인삼의 독무대였으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화기삼(미국, 캐나다삼)이 뛰어들었고 중국도 호시탐탐 하면서 고려인삼의 위상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 홍콩시장 점유비율(추정) : 미국, 캐나다 80%이상, 중국 10~15%, 한국 1~2%

또 최근 한-미FTA 협상타결, 한-중국FTA 추진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첨예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인삼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인삼산업이 되살아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삼산업의 현재 여건을 살펴보면 생산규모면에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작장해로 인해 과거 금산지역의 집중적인 분포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재배면적 : ('95) 9,375ha → ('00) 12,445 → ('10) 19,100

* 생 산 량 : ('95) 11,971톤 → ('00) 13,664 → ('10) 26,944

* 농 가 수 : ('95) 23.1천호 → ('00) 23.0 → ('10) 23.8

* 생 산 액 : ('95) 2,839억원 → ('00) 3,727 → ('10) 9,412

1인당 연간 인삼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수삼 및 파우치제품 수요의 증가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 소비량 : ('95) 0.23kg(연/1인) → ('00) 0.26 → ('05) 0.28 → ('10) 0.43

인삼수출은 1990년도에 165백만불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다가 최근에는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며 인삼생산량의 45%는 수삼형태로 나머지 55%는 건삼(백삼, 홍삼) 및 제품류(엑기스 등)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인삼류 제조업체는 총 610여개로 이중 약 70% 이상이 금산지역에 소재해 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뒤지고 있는 편이나 고려인삼에 대한 우수성과 높은 인지도 면에서는 강점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중국 등 소득향상에 따른 해외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인삼의 특성상 연작장해로 인한 낮은 생산성, 한-미 및 한-중 FTA 등으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미흡, 인삼의 안전성 문제와 복잡한 유통체계 및 규격기준 등은 우리나라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5. 정책제언 및 건의

(1) ONE STOP체계의 대규모 인삼 클러스터 구축

인삼의 생산재배에서부터 가공, R&D, 마케팅, 물류/유통, 웰빙관광, 운영지원 등을 포괄하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고려인삼의 브랜드가치를 다시 살리고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대규모 인삼 기계화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대규모 인삼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세계 시장의 개척과 가공·유통·R&D·관광을 결합한 복합산업의 인삼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과 물류 등 H/W인프라 구축과 생활편의시설 확보 및 대학-연구소-기업-정부간 운영위원회 구성 등 S/W인프라 구축은 물론, 조세감면 및 자금 운영지원 등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요구된다. 그렇게 대응해 줌으로써 한-미, 한-중FTA에 대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고려인삼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2) 인삼수출 전문법인 설립 운영

지난 96년도 홍삼전매제도가 폐지되고 홍삼 가공업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업체마다 각자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업체별 브랜드의 혼선속에서 제품의 맛과 크기 등 모두가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면서 신뢰성도 저하되고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인삼농협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전국의 12개 인삼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브랜드를 “한삼인”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 등 통일성을 기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정 지역별로 묶어서 브랜드를 통합하고 수출을 전담할 전문법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3) 고려인삼세계엑스포를 홍콩에서 개최

금번에 개최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고려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는 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대만큼 충족할 만한 행사라기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고려인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인삼의 국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등에서 고려인삼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고려인삼의 점유율과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고려인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고려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키 위해 전문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금번 인삼엑스포 행사기간동안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서면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고려인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고려인삼의 품격은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고려인삼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수출도 늘어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내수시장도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로 인삼산업이 상당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포도밭 단지인 부르고뉴 지역도 이미 등록된 사실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기대되는 사항이다.

(5) 세계시장에서의 인삼의 분류체계 개선

이밖에도 고려인삼의 지리적표시 등록과 함께 국제식품규격(Codex) 등을 통해 국가별로 달리 분류되고 있는 인삼의 분류체계를 식품으로 분류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인삼의 최대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 인삼을 의약품(등록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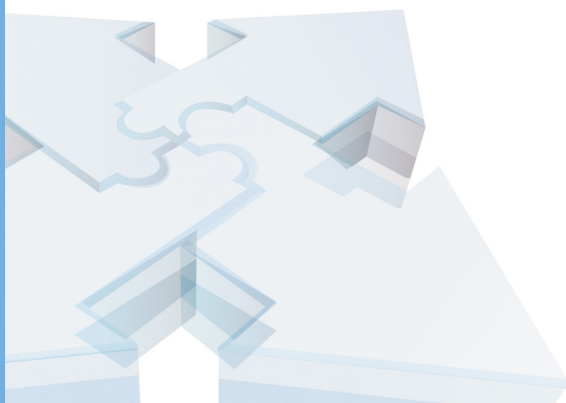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참고문헌

2011금산인삼엑스포 성과보고서,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인삼산업 정책토론자료,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농림수산물식품부.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참살이 전도사, ‘(주)우리황토’

— 우리황토(www.woorihwangto.com) —

21세기 지식정보의 시대의 특징은 편리함과 속도다. 편리함에 익숙할수록 속도에 뒤처지는 아이러니를 겪는다. 속도 경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흙’으로 상징되는 ‘여유’다. 참살이(well-being) 열풍이 불어도 한참 불었지만 정작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흙을 밟거나 만지며 보내고 있을까?

하루 일과를 가만히 되새겨 봐도 단 한 줌의 흙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물론 아무리 흙과 친해지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지 않는 게 요즘 사회다. 아스팔트와 시멘트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도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흙을 제공하려는 기업이 있다. 그냥 흙이 아니다. 우리 고장 논산의 황산벌에서 채취한 최고 양질의 ‘황토’다.

(주)우리황토는 살아 숨 쉬는 자연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기업이다.



(주)우리황토 전경

* 주 : 기업탐방은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격월로 연재됩니다.

(주)우리황토	
창업	2003년 10월
대표	배미희
주소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239-15
주요사업	황토침구류, 내의류, 온열매트 기타 생활용품
직원	45명
매출	95억원(2010년)



‘우리황토’의 주력 상품은 침구류다. 천연 황토로 염색한 다양한 색상의 황토 원단으로 잠을 자는 데 쓰는 이부자리, 베개를 비롯해 의류(잠옷 및 언더웨어), 온열상품, 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각종 아기자기한 황토 원단 소품도 만든다.

어떤 제품이든 공통점이 있다. 바로 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살짝 붉은 기운이 감도는 황토 침구류는 흙이불만 덮어도 금세 포근한 잠에 빠져들 듯 온화하다.

‘우리황토’ 사람들은 흙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살려주는 바탕이라고 믿는다.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사는 곳은 시멘트나 돌 위가 아니라 바로 흙이라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황토’ 홈페이지에는 구매 후기를 통해 고맙다는 찬사가 끊이질 않

는다. 평소 황토 침구류를 판매하는 곳을 무심코 지나쳤지만 우연히 침구 세트를 선물로 받아 써 본 뒤 황토 전도사가 됐다는 고객도 있다. 이불과 베개, 속옷까지 ‘우리황토’라는 고객도 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방안 공기까지 좋아졌다는 느낌은 이구동성이다.

흙은 정직하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만든 침구류는 좋은 기운이 흐르기 마련이다. ‘우리황토’는 그런 기업이다.

‘참 좋은’ 황토가 원료, 믿을 수 있는 기업

요사이 참살이 열풍 덕에 황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집을 짓는 데도 황토가 쓰이고, 누런 흙물인 지장수(地漿水)를 만들어 먹겠다고 황토로 물을 우려내기도 한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 너도 나도 황토 마니아를 자처한다. 이쯤 되면 황토가 떠도 제대로 떴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주)우리황토가 위치한 논산시 상월면은 주위가 온통 황토로 덮여 있다. 그 유명한 황산벌이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황토가 쌓여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황토를 보는 순간 팔을 걷어붙이고 주무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맨 손 맨 발이 황토에 닿는 순간 건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황토는 예로부터 흙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의식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며, 무병장수의 흙으로 생각되어 건강요법으로까지 애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황토 제품은 황토의 본래 기능과 한 땀 한 땀 정성을 제품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우리황토 배미희 대표

배미희 대표는 황토의 효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중 으뜸은 통기성(通氣性)이다. 황토로 벽을 발랐던 옛날 한옥이나 초가집의 기억을 떠올리면 쉽다. 공기가 잘 통하니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습도 조절이 되면 자연히 곰팡이에 강하다.

호수나 바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조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황토를 긴급 투입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강력한 항균 효과는 황토의 특징 중의 하나다. 항균 효과는 각종 냄새도 잡아 준다. 황토로 지은 집에서는 한겨울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됐다. 이유는 뛰어난 방열 효과다. 황토에는 높은 온도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황토의 품질은 세계적으로도 최고로 친다. 중국과 몽골 대륙에서 수십만 년 동안 날아온 황사로 이뤄진 한국 황토에는 카탈라아제, 디페놀 옥시다아제, 사카라제, 프로테아제 등의 효소들이 포함됐는데 각각 독소 제거, 분해력, 비료 요소, 정화 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황토로 지은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요업(세라믹)기술원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 Technology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3-5

전화번호 : 02-3882-0416/7, FAX : 02-3882-0418

시험·분석 성적서

발행 번호 : 2005-0289-1

기관 명/성명 : (주)우리황토 / 이황인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600

시 료 명 : 황토분말

시험분석 방법 : 기기분석법(10P-883)

시험분석 일자 : 2005년 03월 14일 ~ 2005년 03월 15일

용도 : 품질관리

시험·분석 결과

시 료 명	시험분석 항목	시험분석 결과	시험분석 방법 및 참고	비고
황토분말	Hg (wt. %)	불검출	기기분석법 (10P-883)	
	As (wt. %)	불검출		
	Pb (wt. %)	0.01		
	Zn (wt. %)	0.01		
	Cr (wt. %)	0.01		
	Mn (wt. %)	0.01		
	Al (wt. %)	8.75		
	Si (wt. %)	불검출		
	Fe (wt. %)	0.01		
	Ca (wt. %)	불검출		
	Hg (wt. %)	불검출		
	As (wt. %)	불검출		
	Pb (wt. %)	0.01		
	Zn (wt. %)	0.01		
	Cr (wt. %)	0.01		
	Mn (wt. %)	0.01		
	Al (wt. %)	8.75		
	Si (wt. %)	불검출		
	Fe (wt. %)	0.01		
	Ca (wt. %)	불검출		
	Cl ⁻ (wt. %)	불검출		

* 본 시험원 시험법 10P-883은 Perkin Elmer사의 DSC 11도.

시험자 : 안복성(2482)

승인자 :

2005년 03월 15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 이 성적서는 시험일자로부터 시험체 수령 경과 30일 후에도 유효하며 사용용 증명서(10P-883)로 대체 가능함

< 1쪽 중 1쪽 >

발행번호: 02-0289(1)

황토성분분석서/요업(세라믹)기술원

황토는 최근 들어 의학적으로도 효능이 검증되고 있다. 혈액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준다는 기본적인 사실부터 관절염, 근육통, 요통, 자율신경 실조증(교통사고 후유증)에도 좋다는 학계의 보고도 속속 나오고 있다.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는 자정능력이 있어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고, 비세포(암)를 억제하는 효능도 밝혀졌다.

황토의 푸근한 색감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신을 튼튼하게 해준다. 또 황토의 체감온도 과장은 부드럽고 포근하며 상쾌해서 자녀들 성격형성에 좋고,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좋다고 한다.

배 대표는 원적외선이야말로 ‘황토=건강’이라는 등식을 완성시킨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동양 최고의 의학서적인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등에는 황토가 해독 작용이 탁월해 독성을 제거해 주는 데 특효가 있다고 적고 있는데 황토의 해독, 독성 제거 효능을 현대의학으로 밝혀낸 것이 바로 원적외선이다. 실제로 원적외선을 인체에 쏘이면 해당 부분의 체온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체온 상승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이때 유독성 물질이 노폐물과 함께 빠져나간다.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22, 서울 015-020-2451 또는 02-225-0451, 팩스 02-261-0845
주주: (주)KATRI, 대표: 박지현, 부대표: 김지현, 대표: 김지현, 대표: 김지현, 대표: 김지현, 대표: 김지현

시험 성적서

신청자: (주)무진출력 KATRI NO: 0004-00000000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곡면 108 발급일자: 2004. 10. 27
제품명: - - - - - PSE(03) : 1 / 3
시험명: 직물 1점

2004. 10. 27로 작성한 시험 성적에 대한 시험 결과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 시험항목: 원적외선 방출 시험 - 직물온도분포도 측정

■ 시험결과:

위치	원적외선 방출률		원적외선 방사열량	
	(W)	(J/cm²)	(W)	(J/cm²)
1. 상단	5.25	0.14	5.25	0.14
2. 하단	5.25	0.14	5.25	0.14
3. 좌측	5.25	0.14	5.25	0.14
4. 우측	5.25	0.14	5.25	0.14

1. 시험조건: 원적외선 방출률 측정 온도
2. 시험조건: - - - - -
3. 시험조건: - - - - -

4. 시험방법: 시험자의 요구에 따라 온도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1010℃,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1080℃, 1090℃, 1100℃, 1110℃,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180℃, 1190℃, 1200℃, 1210℃, 1220℃, 1230℃, 1240℃, 1250℃, 1260℃, 1270℃, 1280℃, 1290℃, 1300℃, 1310℃, 1320℃, 1330℃, 1340℃, 1350℃, 1360℃, 1370℃, 1380℃, 1390℃, 1400℃, 1410℃, 1420℃, 1430℃, 1440℃, 1450℃, 1460℃, 1470℃, 1480℃, 1490℃, 1500℃, 1510℃, 1520℃, 1530℃, 1540℃, 1550℃, 1560℃, 1570℃, 1580℃, 1590℃, 1600℃, 1610℃, 1620℃, 1630℃, 1640℃, 1650℃, 1660℃, 1670℃, 1680℃, 1690℃, 1700℃, 1710℃, 1720℃, 1730℃, 1740℃, 1750℃, 1760℃, 1770℃, 1780℃, 1790℃, 1800℃, 1810℃, 1820℃, 1830℃, 1840℃, 1850℃,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2110℃, 2120℃, 2130℃, 2140℃, 2150℃, 2160℃, 2170℃, 2180℃, 2190℃, 2200℃, 2210℃, 2220℃, 2230℃, 2240℃, 2250℃, 2260℃, 2270℃, 2280℃, 2290℃, 2300℃, 2310℃, 2320℃, 2330℃, 2340℃, 2350℃, 2360℃, 2370℃, 2380℃, 2390℃, 2400℃, 2410℃, 2420℃, 2430℃, 2440℃, 2450℃, 2460℃, 2470℃, 2480℃, 2490℃, 2500℃, 2510℃, 2520℃, 2530℃, 2540℃, 2550℃, 2560℃, 2570℃, 2580℃, 2590℃, 2600℃, 2610℃, 2620℃, 2630℃, 2640℃, 2650℃, 2660℃, 2670℃, 2680℃, 2690℃, 2700℃, 2710℃, 2720℃, 2730℃, 2740℃, 2750℃, 2760℃, 2770℃, 2780℃, 2790℃, 2800℃, 2810℃, 2820℃, 2830℃, 2840℃, 2850℃, 2860℃, 2870℃, 2880℃, 2890℃, 2900℃, 2910℃, 2920℃, 2930℃, 2940℃, 2950℃, 2960℃, 2970℃, 2980℃, 2990℃, 3000℃, 3010℃, 3020℃, 3030℃, 3040℃, 3050℃, 3060℃, 3070℃, 3080℃, 3090℃, 3100℃, 3110℃, 3120℃, 3130℃, 3140℃, 3150℃, 3160℃, 3170℃, 3180℃, 3190℃, 3200℃, 3210℃, 3220℃, 3230℃, 3240℃, 3250℃, 3260℃, 3270℃, 3280℃, 3290℃, 3300℃, 3310℃, 3320℃, 3330℃, 3340℃, 3350℃, 3360℃, 3370℃, 3380℃, 3390℃, 3400℃, 3410℃, 3420℃, 3430℃, 3440℃, 3450℃, 3460℃, 3470℃, 3480℃, 3490℃, 3500℃, 3510℃, 3520℃, 3530℃, 3540℃, 3550℃, 3560℃, 3570℃, 3580℃, 3590℃, 3600℃, 3610℃, 3620℃, 3630℃, 3640℃, 3650℃, 3660℃, 3670℃, 3680℃, 3690℃, 3700℃, 3710℃, 3720℃, 3730℃, 3740℃, 3750℃, 3760℃, 3770℃, 3780℃, 3790℃, 3800℃, 3810℃, 3820℃, 3830℃, 3840℃, 3850℃, 3860℃, 3870℃, 3880℃, 3890℃, 3900℃, 3910℃, 3920℃, 3930℃, 3940℃, 3950℃, 3960℃, 3970℃, 3980℃, 3990℃, 4000℃, 4010℃, 4020℃, 4030℃, 4040℃, 4050℃, 4060℃, 4070℃, 4080℃, 4090℃, 4100℃, 4110℃, 4120℃, 4130℃, 4140℃, 4150℃, 4160℃, 4170℃, 4180℃, 4190℃, 4200℃, 4210℃, 4220℃, 4230℃, 4240℃, 4250℃, 4260℃, 4270℃, 4280℃, 4290℃, 4300℃, 4310℃, 4320℃, 4330℃, 4340℃, 4350℃, 4360℃, 4370℃, 4380℃, 4390℃, 4400℃, 4410℃, 4420℃, 4430℃, 4440℃, 4450℃, 4460℃, 4470℃, 4480℃, 4490℃, 4500℃, 4510℃, 4520℃, 4530℃, 4540℃, 4550℃, 4560℃, 4570℃, 4580℃, 4590℃, 4600℃, 4610℃, 4620℃, 4630℃, 4640℃, 4650℃, 4660℃, 4670℃, 4680℃, 4690℃, 4700℃, 4710℃, 4720℃, 4730℃, 4740℃, 4750℃, 4760℃, 4770℃, 4780℃, 4790℃, 4800℃, 4810℃, 4820℃, 4830℃, 4840℃, 4850℃, 4860℃, 4870℃, 4880℃, 4890℃, 4900℃, 4910℃, 4920℃, 4930℃, 4940℃, 4950℃, 4960℃, 4970℃, 4980℃, 4990℃, 5000℃, 5010℃, 5020℃, 5030℃, 5040℃, 5050℃, 5060℃, 5070℃, 5080℃, 5090℃, 5100℃, 5110℃, 5120℃, 5130℃, 5140℃, 5150℃, 5160℃, 5170℃, 5180℃, 5190℃, 5200℃, 5210℃, 5220℃, 5230℃, 5240℃, 5250℃, 5260℃, 5270℃, 5280℃, 5290℃, 5300℃, 5310℃, 5320℃, 5330℃, 5340℃, 5350℃, 5360℃, 5370℃, 5380℃, 5390℃, 5400℃, 5410℃, 5420℃, 5430℃, 5440℃, 5450℃, 5460℃, 5470℃, 5480℃, 5490℃, 5500℃, 5510℃, 5520℃, 5530℃, 5540℃, 5550℃, 5560℃, 5570℃, 5580℃, 5590℃, 5600℃, 5610℃, 5620℃, 5630℃, 5640℃, 5650℃, 5660℃, 5670℃, 5680℃, 5690℃, 5700℃, 5710℃, 5720℃, 5730℃, 5740℃, 5750℃, 5760℃, 5770℃, 5780℃, 5790℃, 5800℃, 5810℃, 5820℃, 5830℃, 5840℃, 5850℃, 5860℃, 5870℃, 5880℃, 5890℃, 5900℃, 5910℃, 5920℃, 5930℃, 5940℃, 5950℃, 5960℃, 5970℃, 5980℃, 5990℃, 6000℃, 6010℃, 6020℃, 6030℃, 6040℃, 6050℃, 6060℃, 6070℃, 6080℃, 6090℃, 6100℃, 6110℃, 6120℃, 6130℃, 6140℃, 6150℃, 6160℃, 6170℃, 6180℃, 6190℃, 6200℃, 6210℃, 6220℃, 6230℃, 6240℃, 6250℃, 6260℃, 6270℃, 6280℃, 6290℃, 6300℃, 6310℃, 6320℃, 6330℃, 6340℃, 6350℃, 6360℃, 6370℃, 6380℃, 6390℃, 6400℃, 6410℃, 6420℃, 6430℃, 6440℃, 6450℃, 6460℃, 6470℃, 6480℃, 6490℃, 6500℃, 6510℃, 6520℃, 6530℃, 6540℃, 6550℃, 6560℃, 6570℃, 6580℃, 6590℃, 6600℃, 6610℃, 6620℃, 6630℃, 6640℃, 6650℃, 6660℃, 6670℃, 6680℃, 6690℃, 6700℃, 6710℃, 6720℃, 6730℃, 6740℃, 6750℃, 6760℃, 6770℃, 6780℃, 6790℃, 6800℃, 6810℃, 6820℃, 6830℃, 6840℃, 6850℃, 6860℃, 6870℃, 6880℃, 6890℃, 6900℃, 6910℃, 6920℃, 6930℃, 6940℃, 6950℃, 6960℃, 6970℃, 6980℃, 6990℃, 7000℃, 7010℃, 7020℃, 7030℃, 7040℃, 7050℃, 7060℃, 7070℃, 7080℃, 7090℃, 7100℃, 7110℃, 7120℃, 7130℃, 7140℃, 7150℃, 7160℃, 7170℃, 7180℃, 7190℃, 7200℃, 7210℃, 7220℃, 7230℃, 7240℃, 7250℃, 7260℃, 7270℃, 7280℃, 7290℃, 7300℃, 7310℃, 7320℃, 7330℃, 7340℃, 7350℃, 7360℃, 7370℃, 7380℃, 7390℃, 7400℃, 7410℃, 7420℃, 7430℃, 7440℃, 7450℃, 7460℃, 7470℃, 7480℃, 7490℃, 7500℃, 7510℃, 7520℃, 7530℃, 7540℃, 7550℃, 7560℃, 7570℃, 7580℃, 7590℃, 7600℃, 7610℃, 7620℃, 7630℃, 7640℃, 7650℃, 7660℃, 7670℃, 7680℃, 7690℃, 7700℃, 7710℃, 7720℃, 7730℃, 7740℃, 7750℃, 7760℃, 7770℃, 7780℃, 7790℃, 7800℃, 7810℃, 7820℃, 7830℃, 7840℃, 7850℃, 7860℃, 7870℃, 7880℃, 7890℃, 7900℃, 7910℃, 7920℃, 7930℃, 7940℃, 7950℃, 7960℃, 7970℃, 7980℃, 7990℃, 8000℃, 8010℃, 8020℃, 8030℃, 8040℃, 8050℃, 8060℃, 8070℃, 8080℃, 8090℃, 8100℃, 8110℃, 8120℃, 8130℃, 8140℃, 8150℃, 8160℃, 8170℃, 8180℃, 8190℃, 8200℃, 8210℃, 8220℃, 8230℃, 8240℃, 8250℃, 8260℃, 8270℃, 8280℃, 8290℃, 8300℃, 8310℃, 8320℃, 8330℃, 8340℃, 8350℃, 8360℃, 8370℃, 8380℃, 8390℃, 8400℃, 8410℃, 8420℃, 8430℃, 8440℃, 8450℃, 8460℃, 8470℃, 8480℃, 8490℃, 8500℃, 8510℃, 8520℃, 8530℃, 8540℃, 8550℃, 8560℃, 8570℃, 8580℃, 8590℃, 8600℃, 8610℃, 8620℃, 8630℃, 8640℃, 8650℃, 8660℃, 8670℃, 8680℃, 8690℃, 8700℃, 8710℃, 8720℃, 8730℃, 8740℃, 8750℃, 8760℃, 8770℃, 8780℃, 8790℃, 8800℃, 8810℃, 8820℃, 8830℃, 8840℃, 8850℃, 8860℃, 8870℃, 8880℃, 8890℃, 8900℃, 8910℃, 8920℃, 8930℃, 8940℃, 8950℃, 8960℃, 8970℃, 8980℃, 8990℃, 9000℃, 9010℃, 9020℃, 9030℃, 9040℃, 9050℃, 9060℃, 9070℃, 9080℃, 9090℃, 9100℃, 9110℃, 9120℃, 9130℃, 9140℃, 9150℃, 9160℃, 9170℃, 9180℃, 9190℃, 9200℃, 9210℃, 9220℃, 9230℃, 9240℃, 9250℃, 9260℃, 9270℃, 9280℃, 9290℃, 9300℃, 9310℃, 9320℃, 9330℃, 9340℃, 9350℃, 9360℃, 9370℃, 9380℃, 9390℃, 9400℃, 9410℃, 9420℃, 9430℃, 9440℃, 9450℃, 9460℃, 9470℃, 9480℃, 9490℃, 9500℃, 9510℃, 9520℃, 9530℃, 9540℃, 9550℃, 9560℃, 9570℃, 9580℃, 9590℃, 9600℃, 9610℃, 9620℃, 9630℃, 9640℃, 9650℃, 9660℃, 9670℃, 9680℃, 9690℃, 9700℃, 9710℃, 9720℃, 9730℃, 9740℃, 9750℃, 9760℃, 9770℃, 9780℃, 9790℃, 9800℃, 9810℃, 9820℃, 9830℃, 9840℃, 9850℃, 9860℃, 9870℃, 9880℃, 9890℃, 9900℃, 9910℃, 9920℃, 9930℃, 9940℃, 9950℃, 9960℃, 9970℃, 9980℃, 9990℃, 10000℃, 10001℃, 10002℃, 10003℃, 10004℃, 10005℃, 10006℃, 10007℃, 10008℃, 10009℃, 10010℃, 10011℃, 10012℃, 10013℃, 10014℃, 10015℃, 10016℃, 10017℃, 10018℃, 10019℃, 10020℃, 10021℃, 10022℃, 10023℃, 10024℃, 10025℃, 10026℃, 10027℃, 10028℃, 10029℃, 10030℃, 10031℃, 10032℃, 10033℃, 10034℃, 10035℃, 10036℃, 10037℃, 10038℃, 10039℃, 10040℃, 10041℃, 10042℃, 10043℃, 10044℃, 10045℃, 10046℃, 10047℃, 10048℃, 10049℃, 10050℃, 10051℃, 10052℃, 10053℃, 10054℃, 10055℃, 10056℃, 10057℃, 10058℃, 10059℃, 10060℃, 10061℃, 10062℃, 10063℃, 10064℃, 10065℃, 10066℃, 10067℃, 10068℃, 10069℃, 10070℃, 10071℃, 10072℃, 10073℃, 10074℃, 10075℃, 10076℃, 10077℃, 10078℃, 10079℃, 10080℃, 10081℃, 10082℃, 10083℃, 10084℃, 10085℃, 10086℃, 10087℃, 10088℃, 10089℃, 10090℃, 10091℃, 10092℃, 10093℃, 10094℃, 10095℃, 10096℃, 10097℃, 10098℃, 10099℃, 10100℃, 10101℃, 10102℃, 10103℃, 10104℃, 10105℃, 10106℃, 10107℃, 10108℃, 10109℃, 10110℃, 10111℃, 10112℃, 10113℃, 10114℃, 10115℃, 10116℃, 10117℃, 10118℃, 10119℃, 10120℃, 10121℃, 10122℃, 10123℃, 10124℃, 10125℃, 10126℃, 10127℃, 10128℃, 10129℃, 10130℃, 10131℃, 10132℃, 10133℃, 10134℃, 10135℃, 10136℃, 10137℃, 10138℃, 10139℃, 10140℃, 10141℃, 10142℃, 10143℃, 10144℃, 10145℃, 10146℃, 10147℃, 10148℃, 10149℃, 10150℃, 10151℃, 10152℃, 10153℃, 10154℃, 10155℃, 10156℃, 10157℃, 10158℃, 10159℃, 10160℃, 10161℃, 10162℃, 10163℃, 10164℃, 10165℃, 10166℃, 10167℃, 10168℃, 10169℃, 10170℃, 10171℃, 10172℃, 10173℃, 10174℃, 10175℃, 10176℃, 10177℃, 10178℃, 10179℃, 10180℃, 10181℃, 10182℃, 10183℃, 10184℃, 10185℃, 10186℃, 10187℃, 10188℃, 10189℃, 10190℃, 10191℃, 10192℃, 10193℃, 10194℃, 10195℃, 10196℃, 10197℃, 10198℃, 10199℃, 10200℃, 10201℃, 10202℃, 10203℃, 10204℃, 10205℃, 10206℃, 10207℃, 10208℃, 10209℃, 10210℃, 10211℃, 10212℃, 10213℃, 10214℃, 10215℃, 10216℃, 10217℃, 10218℃, 10219℃, 10220℃, 10221℃, 10222℃, 10223℃, 10224℃, 10225℃, 10226℃, 10227℃, 10228℃, 10229℃, 10230℃, 10231℃, 10232℃, 10233℃, 10234℃, 10235℃, 10236℃, 10237℃, 10238℃, 10239℃, 10240℃,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6℃, 10257℃, 10258℃, 10259℃, 10260℃, 10261℃, 10262℃, 10263℃, 10264℃, 10265℃, 10266℃, 10267℃, 10268℃, 10269℃, 10270℃, 10271℃, 10272℃, 10273℃, 10274℃, 10275℃, 10276℃, 10277℃, 10278℃, 10279℃, 10280℃, 10281℃, 10282℃, 10283℃, 10284℃, 10285℃, 10286℃, 10287℃, 10288℃, 10289℃, 10290℃, 10291℃, 10292℃, 10293℃, 10294℃, 10295℃, 10296℃, 10297℃, 10298℃, 10299℃, 10300℃, 10301℃, 10302℃, 10303℃, 10304℃, 10305℃, 10306℃, 10307℃, 10308℃, 10309℃, 10310℃, 10311℃, 10312℃, 10313℃, 10314℃, 10315℃, 10316℃, 10317℃, 10318℃, 10319℃, 10320℃, 10321℃, 10322℃, 10323℃, 10324℃, 10325℃, 10326℃, 10327℃, 10328℃, 10329℃, 10330℃, 10331℃, 10332℃, 10333℃, 10334℃, 10335℃, 10336℃, 10337℃, 10338℃, 10339℃, 10340℃, 10341℃, 10342℃, 10343℃, 10344℃, 10345℃, 10346℃, 10347℃, 10348℃, 10349℃, 10350℃, 10351℃, 10352℃, 10353℃, 10354℃, 10355℃, 10356℃, 10357℃, 10358℃, 10359℃, 10360℃, 10361℃, 10362℃, 10363℃, 10364℃, 10365℃, 10366℃, 10367℃, 10368℃, 10369℃, 10370℃, 10371℃, 10372℃, 10373℃, 10374℃, 10375℃, 10376℃, 10377℃, 10378℃, 10379℃, 10380℃, 10381℃, 10382℃, 10383℃, 10384℃, 10385℃, 10386℃, 10387℃, 10388℃, 10389℃, 10390℃, 10391℃, 10392℃, 10393℃, 10394℃, 10395℃, 10396℃, 10397℃, 10398℃, 10399℃, 10400℃, 10401℃, 10402℃, 10403℃, 10404℃, 10405℃, 10406℃, 10407℃, 10408℃, 10409℃, 10410℃, 10411℃, 10412℃, 10413℃, 10414℃, 10415℃, 10416℃, 10417℃, 10418℃, 10419℃, 10420℃, 10421℃, 10422℃, 10423℃, 10424℃, 10425℃, 10426℃, 10427℃, 10428℃, 10429℃, 10430℃, 10431℃, 10432℃, 10433℃, 10434℃, 10435℃, 10436℃, 10437℃, 10438℃, 10439℃, 10440℃, 10441℃, 10442℃, 10443℃, 10444℃, 10445℃, 10446℃, 10447℃, 10448℃, 10449℃, 10450℃, 10451℃, 10452℃, 10453℃, 10454℃, 10455℃, 10456℃, 10457℃, 10458℃, 10459℃, 10460℃, 10461℃, 10462℃, 10463℃, 10464℃, 10465℃, 10466℃, 10467℃, 10468℃, 10469℃, 10470℃, 10471℃, 10472℃, 10473℃, 10474℃, 10475℃, 10476℃, 10477℃, 10478℃, 10479℃, 10480℃, 10481℃, 10482℃, 10483℃, 10484℃, 10485℃, 10486℃, 10487℃, 10488℃, 10489℃, 10490℃, 10491℃, 10492℃, 10493℃, 10494℃, 10495℃, 10496℃, 10497℃, 10498℃, 10499℃, 10500℃, 10501℃, 10502℃, 10503℃, 10504℃, 10505℃, 10506℃, 10507℃, 10508℃, 10509℃, 10510℃, 10511℃, 10512℃, 10513℃, 10514℃, 10515℃, 10516℃, 10517℃, 10518℃, 10519℃, 10520℃, 10521℃, 10522℃, 10523℃, 10524℃

우리황토에서 제작하는 침구류도 원적외선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내로라하는 논산 황산벌의 최고급 황토 제품으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생활 용품들은 꼼꼼한 공정을 거치는 사이 고운 황토 입자를 가득 채운다. 천연재료 황토를 사용한 이불과 베개, 온열기구 등은 숙면을 취하는 동안 몸 속 깊은 곳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제거해 준다. 황토 열풍 속에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업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황토가 관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원재료인 황토가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특허 받은 기업, 이불 속이 다르다

(주)우리황토는 침구류를 생산하는 회사다. 침대는 과학이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면 ‘침구는 의학’이라는 슬로건이 걸맞은 곳이 바로 우리황토다. 한마디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기업이다. 잠만 잘 자도 백약이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서양식 침구가 대세가 됐지만 한국인은 여전히 우리 고유의 이부자리를 선호한다. 때문에 침구 시장은 여러 종류의 재질로 만들어진 이부자리들의 각축장이나 다름없다. 사실 베개와 이부자리, 잠옷 등은 평상복 다음으로 피부와 직접 맞는 것들이다. 누구나 하루의 3분의 1은 잠자리와 함께 해야 한다. 당연히 피부에 좋은 이부자리가 숙면을 도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황토는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을, 지성피부에는 유분을 제거해 줘 피부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황토의 침구 세트를 써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잠자리가 좋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황토 침구 제품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사실 황토 염색은 일반 염색과 근본이 다르다. 일반 염색은 색상과 질감을 내기 위해 화학약품을 쓴다. 독한 화학약품 처리를 했으니 몸에 좋을 리 없다. 당장 호흡기관과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음식과 피부에 직접 닿는 옷, 그리고 이부자리다. 특히 침구의 경우 안감과 속(충전제)까지 챙겨봐야 한다. 이부자리나 베개의 속으로 사용되는 충전제(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



가볍고 세탁성이 좋아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솜의 경우 석유나 폐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영유아,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토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일부 몰지각한 업체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솜을 채워놓는 비양심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구입할 이부자리가 절실하다.

‘우리황토’는 특허 받은 ‘누에고치 충전제’ 방식으로 이런 걱정을 말끔하게 없앴다. 누에고치에 황토가 물들도록 염색해 누에고치의 강도를 높이고, 이를 충전제로 활용하면서 인체에 유익한 황토의 효능이 증폭되도록 했다.

황토로 염색한 원단과 함께 충전제 자체를 몸에 좋은 천연 재료인 황토와 누에고치로 꼭꼭 채워 놓으니 피부 트러블이 생길 리 만무하다. 청량감을 주는 통풍은 물론 노폐물 흡수 효과도 뛰어나 아무리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던 사람도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을 수 있다.

각종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특허 받은’ 우리황토는 필수 아이템인 셈이다. 일에 지친 직장인, 고지혈증을 앓는 노인, 열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새집증후군이나 땀띠,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과 성장기 청소년, 새벽부터 밤늦도록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기도 하다. 우리황토는 제품과 관련한 3종의 특허와 1종의 실용신안권 외에도 각종 품질을 보증하는 수많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공인 EQ 마크 인증(황토내의)을 따냈고, 2010년에는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08),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2004) 인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품질보증(Q-MARK) 지정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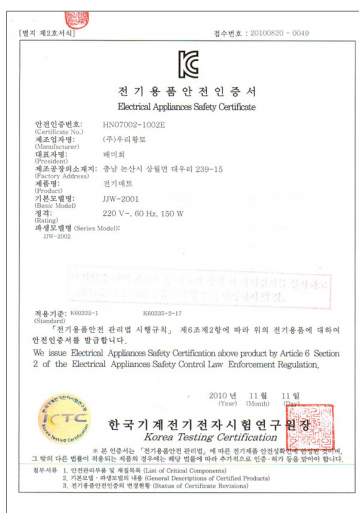
ISO9001인증서



ISO14001인증서



공인EQ마크 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넘버 원 침구업체로 도약

(주)우리향토는 지난 2003년 7월 논산시 연무대 봉동리에 있는 한 폐교에서 침구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에는 공동대표였지만 2008년 3월 배미희 대표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 다각화가 뜻을 올린다.

2009년 7월, 지금의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공장(3만3,000제곱미터)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국내 ‘넘버 원’ 침구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황토염색 섬유를 사용한 침구류, 내의류와 황토 볼을 이용한 온열매트 등 100여종의 제품이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이브존, 메가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매장과 직영매장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무료 염색 서비스 등 차별화된 사후관리는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도 소비자들이 선택 지갑을 여는 이유다. 황토 제품 특유의 물 빠짐 현상을 고려해 언제든지 무료로 재염색을 해줘 늘 새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쯤 되면 우리황토는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배미희 대표는 “황토의 본래 기능을 제품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제품으로 고객에게 참살이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황토는 지난해부터 ‘황토숨’ ‘자연휴(休)’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유통채널 다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뉴욕 등 해외 전시회에서 확인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연말까지 해외 판로 개척과 매출 신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부여 백제문화 재현단지 내 공방촌에 입주해 백제 문화권을 찾는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 홍보와 마케팅 전략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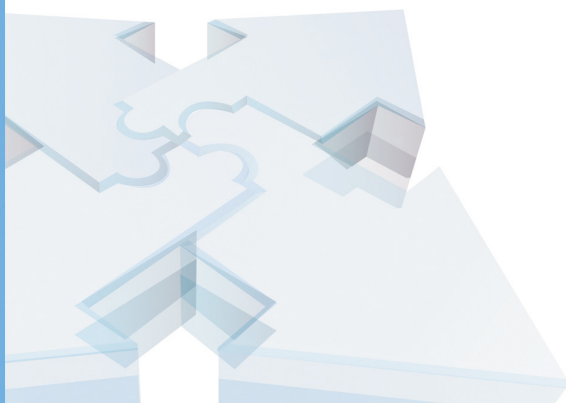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배미희 대표와 우리황토는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의 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충남 논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네 이야기를 바탕으로 된고, 살며, 텃밭이었던 흙(황토)을 이용해 황토 고구마, 황토 된장 등 각종 관련 먹거리를 명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배 대표의 꿈은 지역 주민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으로 차근차근 완성되고 있다.

우리황토는 향토기업이다. 생산 현장에는 충청도 특유의 구수하고, 순박하고, 근면함이 물씬 풍긴다. 우리황토는 흙을 사랑한다. 세상 모두가 흙을 사랑했으면 한다. 흙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흙에 감사한다. 흙이 가진 고마움을 생각해 흙에 정성을 들인다.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는 흙, 모든 생명체의 바탕이 되는 흙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모두 흙이 주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자. 그리고 올 겨울엔 부모님 댁에 우리황토 하나 넣어 드리면 어떨까? [인터뷰 : 대전일보 권성하 기자]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8월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7월)		대외거래		고 용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47.3	142.3	150.5	115.9	124.5	122.6	45,938	45,460	25,257	24,495	3.0
서울	89.0	90.6	149.4	113.2	122.8	121.5	4,863	11,387	5,258	5,032	4.3
부산	136.8	133.1	171.6	118.7	126.2	123.7	1,187	1,293	1,643	1,589	3.3
대구	124.0	125.8	150.5	104.3	125.3	122.7	508	321	1,199	1,157	3.5
인천	118.7	117.4	119.8	115.2	123.1	122.3	2,278	3,139	1,440	1,379	4.2
광주	156.5	142.9	115.4	111.8	124.8	122.8	1,068	424	695	677	2.5
대전	122.7	120.9	119.0	103.8	125.5	123.4	345	248	741	717	3.2
울산	123.8	134.1	119.0	105.4	126.6	124.5	8,047	7,119	556	543	2.3
경기	182.6	159.2	208.7	115.0	125.0	123.2	6,954	8,397	6,059	5,888	2.8
강원	129.1	130.7	176.8	149.7	124.5	122.3	178	126	725	711	1.9
충북	157.1	163.8	178.7	117.4	124.8	122.9	937	863	785	766	2.4
충남	224.8	212.1	247.9	162.0	125.0	123.3	4,926	2,868	1,043	1,019	2.3
전북	140.0	140.6	154.8	129.2	125.5	123.6	1,105	521	867	851	1.8
전남	121.1	122.1	115.4	141.3	125.3	123.3	3,996	4,118	924	903	2.3
경북	106.7	108.5	153.3	128.0	126.1	123.6	4,524	2,177	1,420	1,398	1.5
경남	138.2	136.0	131.5	124.1	125.4	123.6	5,012	2,433	1,607	1,571	2.2
제주	116.7	121.4	101.6	160.8	123.4	121.2	7	21	297	293	1.3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경제동향(요약)



- 8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과 동일, 선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하여 경기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8월 충남 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 및 기업경기지수가 기준치보다 낮아 기업의 체감경기 둔화가 지속됨

고용사정은 다소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나, 산업활동의 감소세 지속, 대외거래의 주춤,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소 주춤

경기

- 8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0% 상승한 138.4를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100.4로 전월대비 0.4%p 하락하여 전월에 비해 감소폭 확대
- 8월 BSI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상승, 비제조업은 동일(제조업 89, 비제조업 80)
-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경기전망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채래시장 전망지수는 기준지수 100을 대부분 웃돌며 채래시장 체감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산업활동

- 생산지수 221.4(-7.1%), 출하지수 211.9(-2.1%), 재고지수 249.3(-2.6%) 모두 전월 대비 감소
- 생산 및 출하지수 감소는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등의 품목 감소에 기인

소비 및 물가

- 8월 대형소매점(-8.5%) 및 대형마트(-5.4%) 판매액 모두 전월대비 감소
- 9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63,512대로 전월대비 0.3%(2,668대) 증가
- 9월 중 소비자물가지수 123.3(+0.2%), 생활물가지수 125.0(+0.1%) 모두 전월대비 상승

수출입

- 8월 수출은 전월대비 3.1% 감소(49억26백만달러, 반도체 +0.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2% 등)
- 수입은 전월대비 1.4% 증가(28억68백만달러, 원유 -0.4%, 석탄 +64.0% 등)
- 8월 무역수지는 20억58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2억달러 감소)

고용

- 8월 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1.1%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1.7%p 증가(65.6%)
- 취업자 0.3% 감소한 101만9천명(농림어업 18만1천명, 광공업 20만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63만3천명)
- 8월 실업률 2.3%로 전월과 동일, 실업자 2만4천명으로 전월대비 5.5% 감소

금융

- 8월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
- 8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4,558억원, 총 여신증감액 +3,141억원
- 8월 어음부도율 0.18%로 전월대비 0.01%p 하락
- 8월 부도금액 20억9천만원으로 전월보다 3억4천만원 증가

건설 및 부동산

- 8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 187.8%(1,504,930㎡), 착공면적 6.8%(456,491㎡) 각각 증가
- 9월 주택매매가격 지수 102.5로 전월대비 0.9%(주요상승지역; 아산, 천안 동남구), 전세가격지수 103.5로 전월대비 1.2%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아산, 천안 동남구)

1. 경기동향

[전국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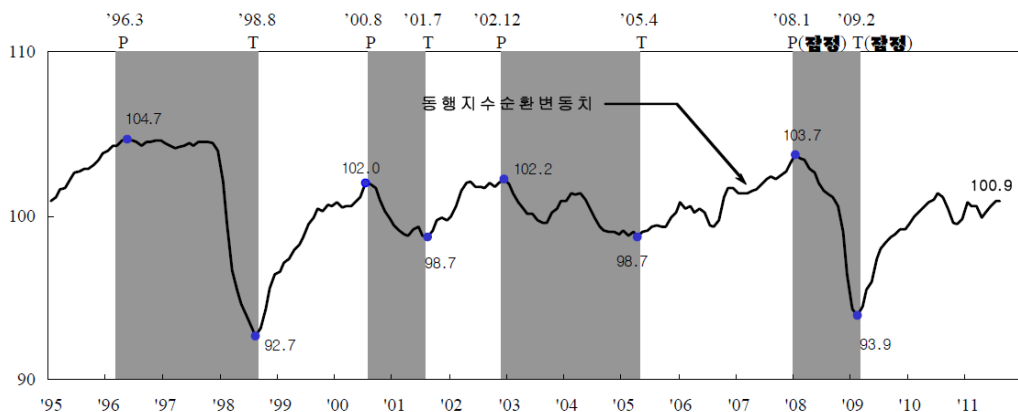
- 8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지수, 비농가취업지수, 수입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4%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과 동일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

구분	'1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 동행종합지수	135.1	135.3	135.9	135.5	136.6	137.7	138.6	139.2
· 전월비(%)	1.5	0.1	0.4	-0.3	0.8	0.8	0.7	0.4
○ 순환변동치	100.8	100.6	100.6	99.9	100.2	100.6	100.9	100.9
· 전월차(%p)	1.0	-0.2	0.0	-0.7	0.3	0.4	0.3	0.0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선행종합지수는 소비자기대지수, 재고순환지표, 종합주가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수주액, 금융기관유동성, 순상품교역조건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0%로 전월과 동일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1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 선행종합지수	130.1	129.8	129.4	128.9	129.5	130.2	130.8	131.0
· 전월비(%)	0.6	-0.2	-0.3	-0.4	0.5	0.5	0.5	0.2
○ 전년동월비	3.0	2.3	1.6	1.0	1.3	1.7	2.0	2.0
· 전월차(%p)	0.1	-0.7	-0.7	-0.6	0.3	0.4	0.3	0.0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2011. 8월중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비농가취업자수, 수출액 등의 지표가 하락하였으나, 수입액, 전력판매량의 증가로 138.4를 나타냄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한 100.4를 나타내며 전월에 비해 감소폭 확대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 동행종합지수	134.8	135.8	136.1	136.1	136.9	138.0	138.3	138.4
· 전월비(%)	1.5	0.8	0.2	0.0	0.6	0.8	0.3	0.0
○ 순환 변동치	101.3	101.5	101.1	100.5	100.7	101.0	100.9	100.4
· 전월차(%p)	1.1	0.1	-0.4	-0.5	0.2	0.4	-0.2	-0.4

주 : p는 잠정치임.

- 8월 충남은 세계적인 소비감소로 인한 수출감소세 지속으로 산업생산의 감소,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표가 전월대비 하락
 - 비농가취업자수(-0.1%), 산업생산지수(-0.9%), 대형소매점판매지수(-1.6%), 수출액(-1.6%) 감소
 - 전력사용량(+0.7%), 수입액(+3.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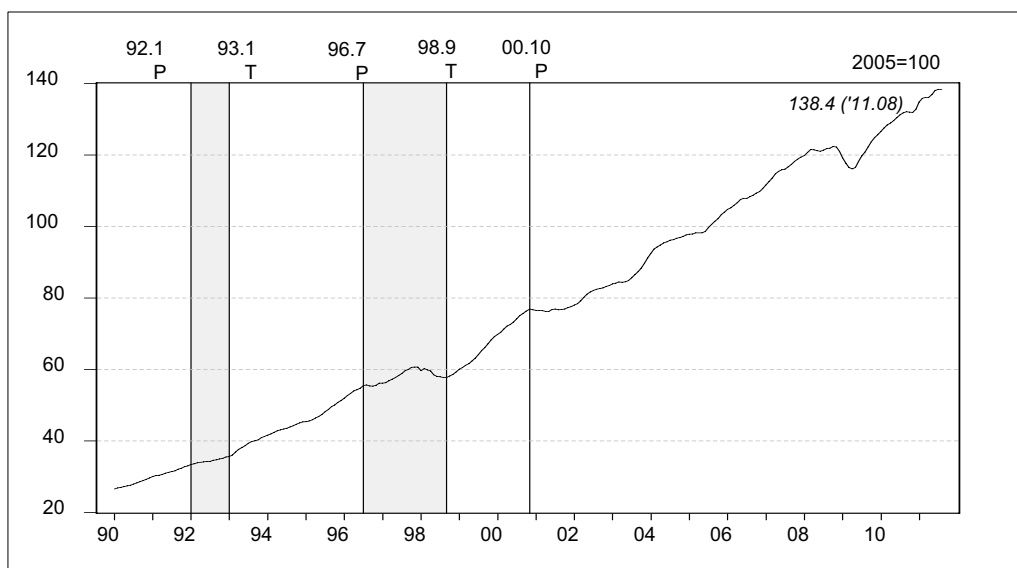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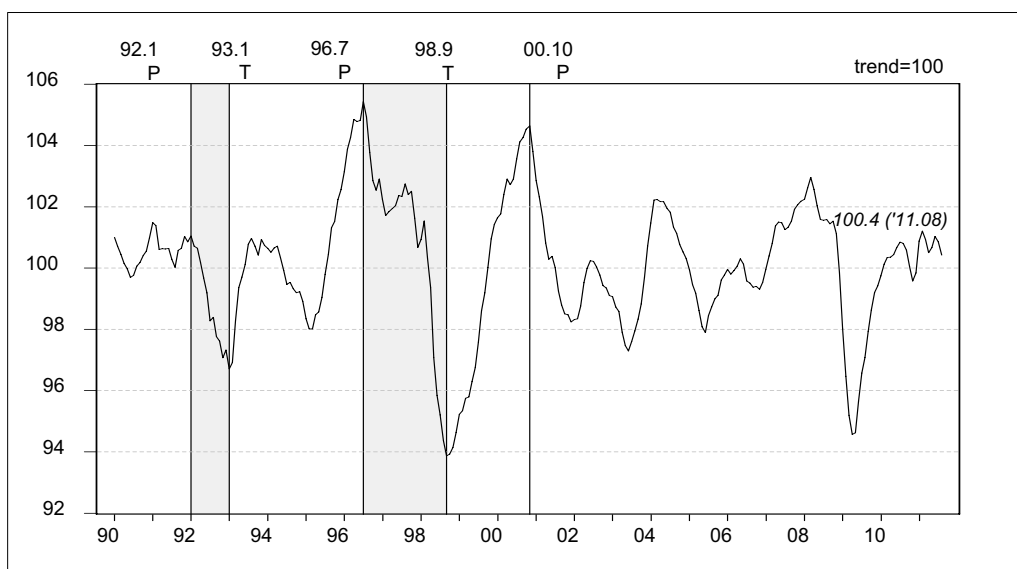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비농가취업자수	0.7	1.0	0.5	0.3	-0.2	0.3	0.4	-0.1
산업생산지수	0.8	0.4	-0.3	0.0	1.1	1.7	0.7	-0.9
대형소매점판매지수	14.2	6.2	-2.5	-4.4	3.8	3.1	1.6	-1.6
전력사용량	1.6	0.9	1.0	0.7	1.1	0.9	0.2	0.7
수출액(실질)	1.0	-0.3	-0.4	0.1	0.4	-0.4	-2.1	-1.6
수입액(실질)	1.2	-1.2	1.4	1.7	2.1	2.9	0.7	3.3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10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는 89로 전월(87)보다 2p 상승, 자금사정 전망 BSI는 97로 전월(100)보다 3p 하락
- 10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80으로 전월(80)과 동일, 자금사정전망 BSI 역시 83으로 전월(83)과 동일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 전망은 지난 5월부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비제조업 업황은 7월에 비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해 기업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업경기	99	93	90	91	89	87	89(86)	+2(0)
매출	112	111	111	106	101	101	102	+1
생산	111	109	108	107	106	103	103	0
신규수주	109	109	106	105	98	97	103	+6
채산성	86	86	85	87	86	88	86	-2
제품재고	98	99	101	103	105	105	102	-3
인력사정	89	91	90	89	93	94	96	+2
자금사정	100	97	96	98	95	100	97(87)	-3(-1)
외부자금수요	119	116	115	116	116	112	116	+4
자금조달사정	101	100	96	96	94	98	67	-4

주 : ()내는 전국 기준.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업경기	82	81	85	78	83	80	80(86)	0(+3)
매출	90	91	92	93	92	88	90(95)	+2(+1)
채산성	89	87	87	91	88	84	90(93)	+6(+2)
인력사정	86	86	87	82	84	82	85(89)	+3(0)
자금사정	95	88	86	84	79	83	83(91)	0(+1)
외부자금수요	123	123	120	124	130	125	118	-7
자금조달사정	93	94	89	91	89	88	89	+1

주 : ()내는 전국 기준.

$$BSI^*(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시장경기 동향]

- 9월 충남지역 재래시장의 업황 체감지수는 전월보다 19.9p 상승한 85.5 기록
 - 업황(+19.9p), 매출(+27.2p), 마진(+17.8p), 자금사정(+11.0p), 외상거래비중(+0.9p), 구매고객수(+24.6p)
 - 매입원가(-22.9p), 상품판매가격(-12.2p)
- 10월 충남지역 재래시장의 전망지수는 업황을 제외한 모든 지수가 전월대비 하락
 - 업황(+0.3p)
 - 매출(-3.3p), 마진(-6.2p), 매입원가(-13.5p), 상품판매가격(-9.4p), 자금사정(-4.2p), 외상거래비중(-0.6p), 구매고객수(-2.3p)
- 대부분의 체감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전망지수는 대부분 하락하였음. 체감지수의 상승은 성수기적 요인 중 하나인 명절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전망지수 하락

전국 및 충남의 재래시장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전망)
업황	전국	63.0	63.5	61.8	53.2	54.4	80.7	102.2
	충남	84.6	70.7	60.1	63.1	65.6	85.5	102.2
매출	전국	65.5	67.0	59.2	52.5	53.4	78.1	101.5
	충남	77.2	67.3	58.3	46.7	58.1	85.3	104.9
마진	전국	65.0	65.1	62.3	54.5	57.2	76.4	96.6
	충남	69.1	70.7	66.6	53.4	63.0	80.8	96.6
매입 원가	전국	144.8	142.2	133.9	137.6	144.7	128.5	109.9
	충남	142.3	133.9	128.8	135.0	145.0	122.1	105.5
상품 판매가격	전국	110.7	109.0	106.9	106.7	112.2	106.8	102.5
	충남	112.0	109.3	104.2	112.2	116.7	104.5	103.6
자금 사정	전국	63.0	64.3	64.0	57.9	59.2	72.3	93.6
	충남	70.3	70.7	67.7	60.6	66.9	77.9	91.7
외상 거래비중	전국	101.7	101.5	100.5	102.3	101.5	100.4	100.3
	충남	102.0	102.3	103.7	101.6	100.5	101.4	99.5
구매 고객수	전국	66.4	66.6	59.7	53.7	55.5	77.8	101.5
	충남	80.4	68.7	59.4	63.0	60.1	84.7	103.3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산업생산 동향]

- 8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 전월대비 7.1% 각각 감소
 - 자동차,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비금속광물제품, 기계 및 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8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산업생산지수	227.7	234.8	234.6	246.7	247.4	241.0	221.4
전년동월비	16.4	3.6	8.9	13.7	10.5	7.7	-2.8
전월비	4.4	-4.4	1.6	5.3	1.5	-1.5	-7.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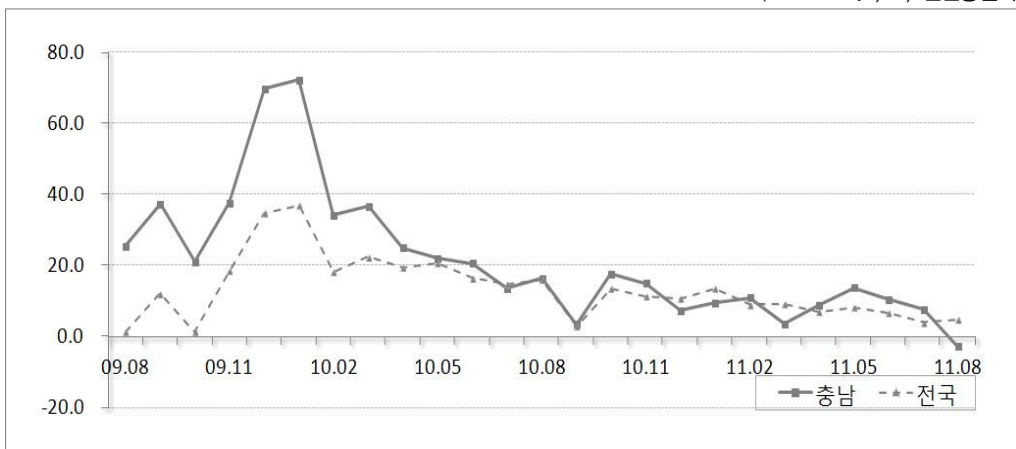
- 자동차(+8.8) :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기관용부품, 제동장치 등
- 제1차금속(+9.5)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주물, 강관 등

[감소업종]

- 영상음향및통신(-6.4) : TV용LCD, 모니터용 LCD, 백라이트유닛, 모스조립 등
- 비금속광물제품(-27.2) : 액정모니터용유리, 벽돌, 아스콘 등
- 기계및장비(-2.5) : 감속기, 열처리로 및 전기로, 기타반도체장비 등
- 기타운송장비(-100.0) : 특수선박(비상업용)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추이

(2005=100.0, %, 전년동월비)



[출하 동향]

- 8월 충남의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전월대비 2.1% 감소
 - 자동차, 제1차금속,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8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출하지수	208.8	219.1	218.5	225.2	224.7	212.8	211.9
전년동월비	19.8	5.1	11.5	14.8	9.3	5.0	1.5
전월비	3.3	-6.4	2.4	3.8	-0.5	-2.0	-2.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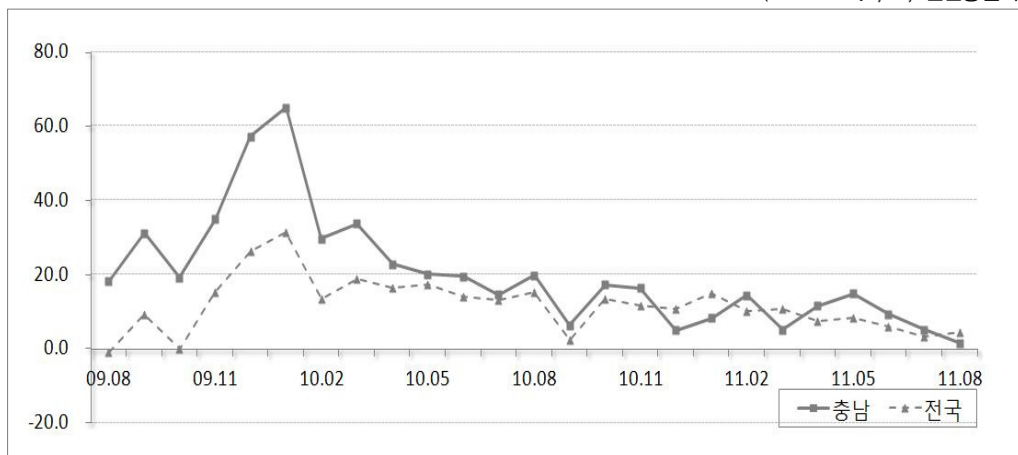
- 자동차(+18.4) :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대형승용차, 기관용부품 등
- 제1차금속(+18.5) : 열연대강, 주물, 아연도강판, 강관, 냉연강대 등
- 석유정제품(+12.2) : 휘발유, 경유, 나프타, 부탄가스, 등유 등
- 화학제품(+6.1) : 에틸렌, 스티렌모너머,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 등

[감소업종]

- 영상음향및통신(-5.2) : TV용LCD, 백라이트유니트, 모니터용LCD 등
- 기계및장비(-6.7) : 감속기, 열처리로 및 전기로, 금형, 기타반도체장비 등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추이

(2005=100.0, %, 전년동월비)



[재고 동향]

- 8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6.4% 증가, 전월대비 2.6% 감소
 -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섬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8월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8월 ^P
재고지수	170.3	204.1	200.9	209.7	223.0	261.5	249.3
전년동월비	25.8	46.0	38.6	34.9	38.1	49.4	46.4
전월비	-1.4	-2.6	0.5	3.8	7.7	12.9	-2.6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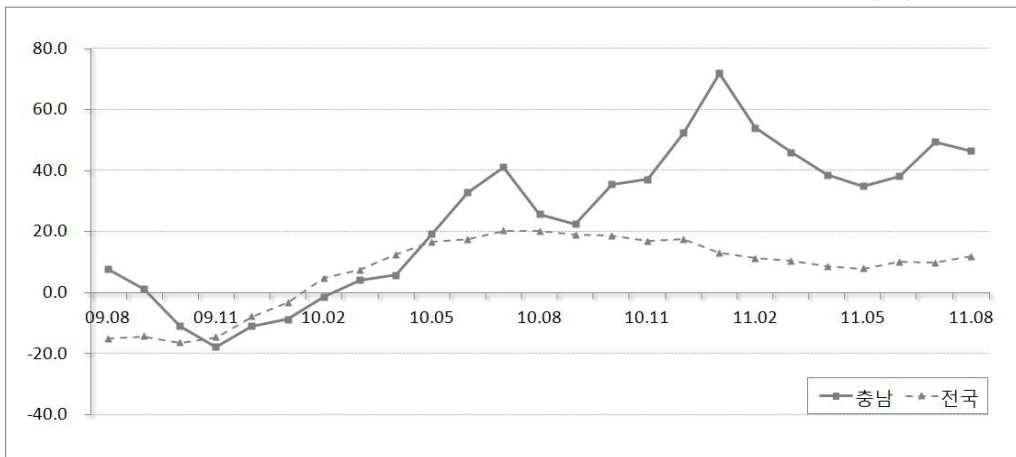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74.0) : TV용LCD, PDP, 노트북용LCD, 에폭시인쇄회로기판 등
- 제1차금속(+44.5)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칼라강판, 주물 등
- 섬유제품(+90.1) : 자동차용커버, 면사, 합성섬유직물, 타포린 등
- 비금속광물제품(+54.4) : 액정모니터용유리, 차량용안전유리, 콘크리트벽면 등

[감소업종]

- 자동차(-34.2) :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자동차용히터 등
- 기계및장비(-8.5) : 차량용에어콘, 패키지형에어콘, 공기청정기, 베어링 등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추이

(2005=100.0, %, 전년동월비)



3. 소비 · 물가

[소비]

- 8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114,16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8.5% 감소, 전년동월대비 30.9% 증가, 지수는 162.0을 나타냄
-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감소로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5.4% 감소,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9.9) : 가구(-27.7), 통신기기(-15.7), 가전제품(-12.4)
- 준내구재(-19.9) : 의복(-30.9), 신발(-21.9), 운동·오락(-14.9)
- 비내구재(+0.3) : 서적·문구(+19.2), 화장품(+3.7)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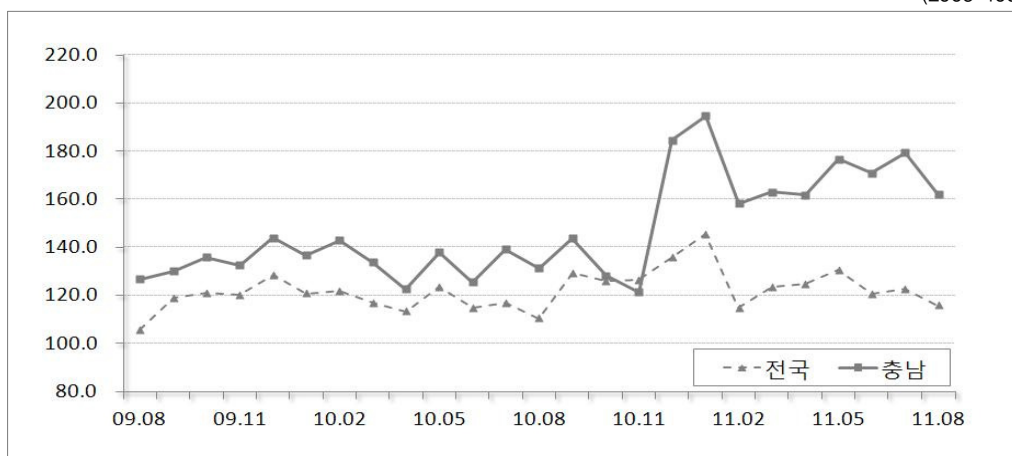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o	8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398,604	5,367,114	4,890,436	5,102,874	4,889,379		11.2	-4.2
충 남								
대형소매점	87,203	121,238	117,627	124,762	114,166		30.9	-8.5
대형마트	69,803	78,018	75,025	84,338	79,742		14.2	-5.4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자동차 등록]

- 9월 충남의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63,512대로 전월대비 0.3%(2,668대) 증가, 전년 동월대비 4.5%(37,391대) 각각 증가
 - 차종별로는 전월대비 승용차(+0.4%), 특수화물(+0.5%), 화물차(+0.1%) 등록대수 증가
 - 전년동월대비 승합차(-1.0%) 등록대수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5.9%), 화물차(+1.8%), 특수화물차(+7.6%) 등록대수는 각각 증가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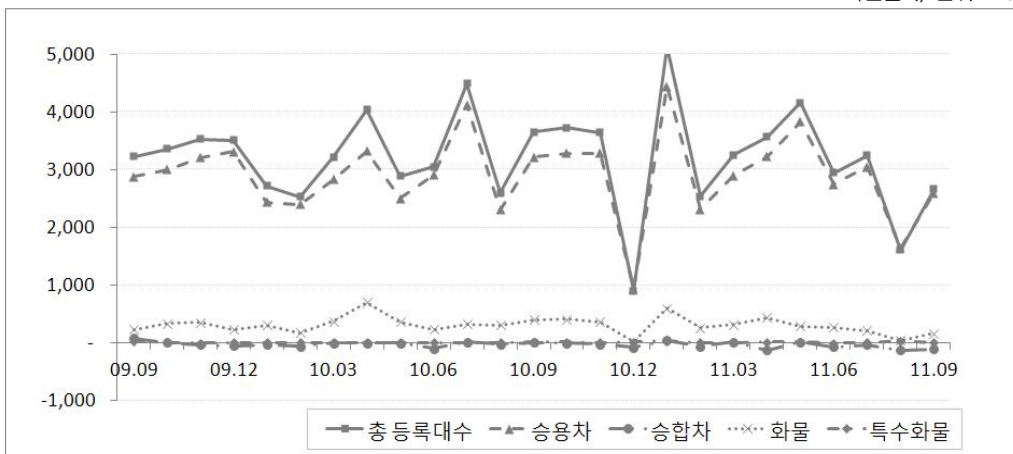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0년	2011년				증 감	
		9월	6월	7월	8월	9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2,6121	855,987	859,237	860,844	863,512	37,391	2,668
차 종 별	승용	58,0147	607,137	610,184	611,828	614,423	34,276	2,595
	승합	50,490	50,243	50,211	50,087	49,980	-510	-107
	화물	192,878	195,870	196,091	196,139	196,305	3,427	166
	특수화물	2,606	2,737	2,751	2,790	2,804	198	14
용 도 별	자가용	788,243	816,040	819,220	820,704	823,255	35,012	2,551
	관용	3,878	4,003	4,026	4,032	4,008	130	-24
	영업용	34,000	35,944	35,991	36,108	36,249	2,249	141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물가]

- 9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3.3으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4.3% 각각 상승
 - 농축산물(+5.8%), 공업제품(+7.8%), 집세(+3.6%), 공공서비스(+0.4%), 개인서비스(+2.9%)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25.0으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42.4로 전월대비 3.3%, 전년동월대비 5.5% 각각 하락
 -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9.7%, 신선과실 4.2% 증가, 신선채소 18.2% 감소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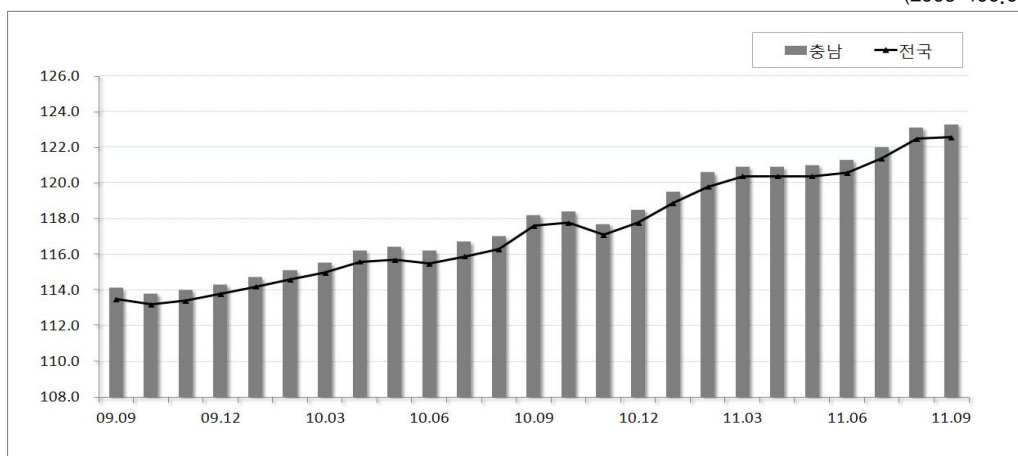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9월	6월	7월	8월	9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7.6	120.6	121.4	122.5	122.6		4.3	0.1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8.2	121.3	122.0	123.1	123.3		4.3	0.2
상품 상·하	상	품	121.5	126.0	127.6	129.8	130.4		7.3	0.5
	하	서비스	115.8	117.9	118.0	118.3	118.1		2.0	-0.2
생활물가지수			120.4	122.7	123.5	124.9	125.0		3.8	0.1
신선식품지수			150.7	123.8	136.5	147.2	142.4		-5.5	-3.3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8월 충남의 수출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전년동월대비 감소와 석유제품의 전월대비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2%, 전월대비 3.1%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0.2% 감소(49억26백만달러)하여 감소세 전환(+3.8%→0.2%)
 - 반도체(-5.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35.2%)의 감소가 수출 감소세에 기인
- 8월 충남의 수입은 석탄, 석유제품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38.5%, 전월대비 1.4% 각각 증가
 - 석탄(+42.9%), 석유제품(+55.9%) 등의 증가로 인해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37.0%→+38.5%)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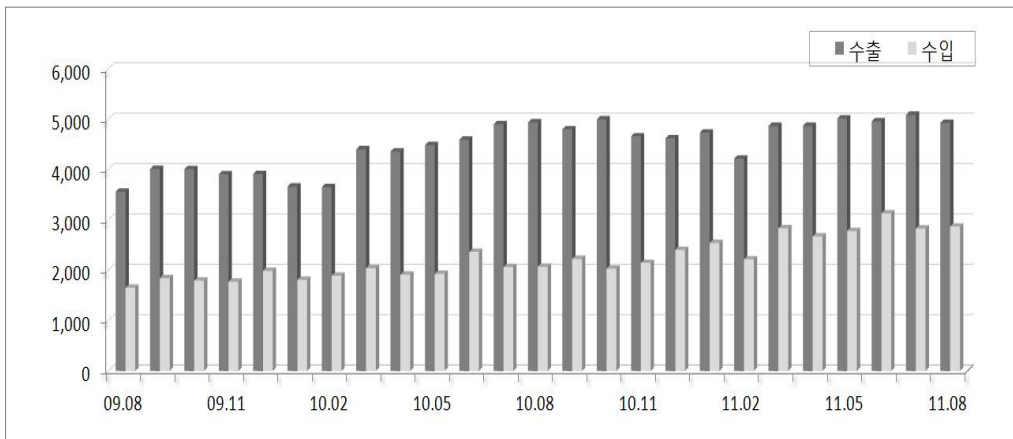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o	8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36,481	47,423	46,753	49,182	45,938	25.9	-6.6
	수입	35,275	45,311	44,889	44,288	45,460	28.9	2.6
	무역수지	1206	2,112	1,864	4,894	478	-	-
충남	수출	4,935	5,015	4,957	5,086	4,926	-0.2	-3.1
	수입	2,071	2,781	3,130	2,828	2,868	38.5	1.4
	무역수지	2,864	2,234	1,827	2,258	2,058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8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4,926	-0.2	-3.1	100.0
1	반도체	1,470	-5.3	0.8	29.8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36	-35.2	5.2	21.0
3	석유제품	440	58.3	-17.1	8.9
4	컴퓨터	237	67.0	19.1	4.8
5	전자응용기기	230	153.9	9.0	4.7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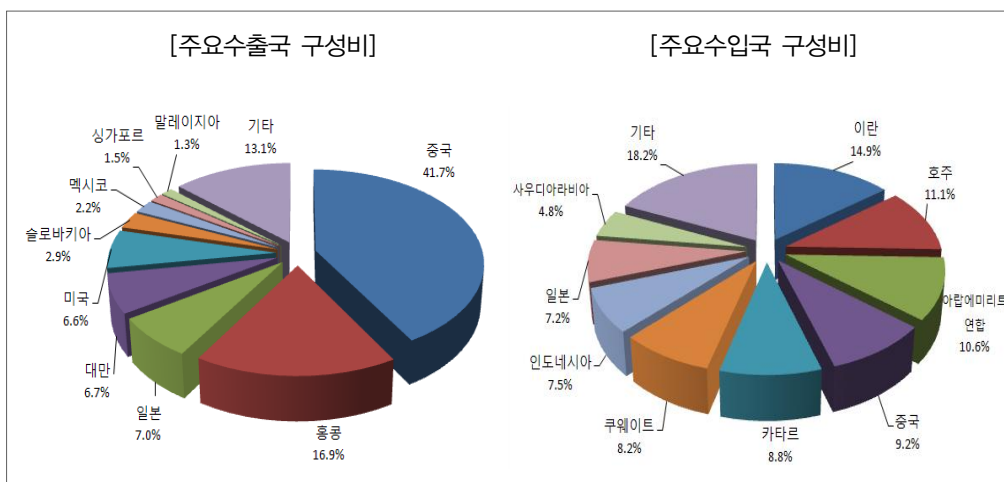
8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868	38.5	1.4	100.0
1	원유	1,180	61.5	-0.4	41.1
2	석탄	451	42.9	64.0	15.7
3	석유제품	349	55.9	19.1	12.2
4	정밀화학원료	54	44.9	8.0	1.9
5	식물성물질	47	60.8	20.5	1.6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8월 국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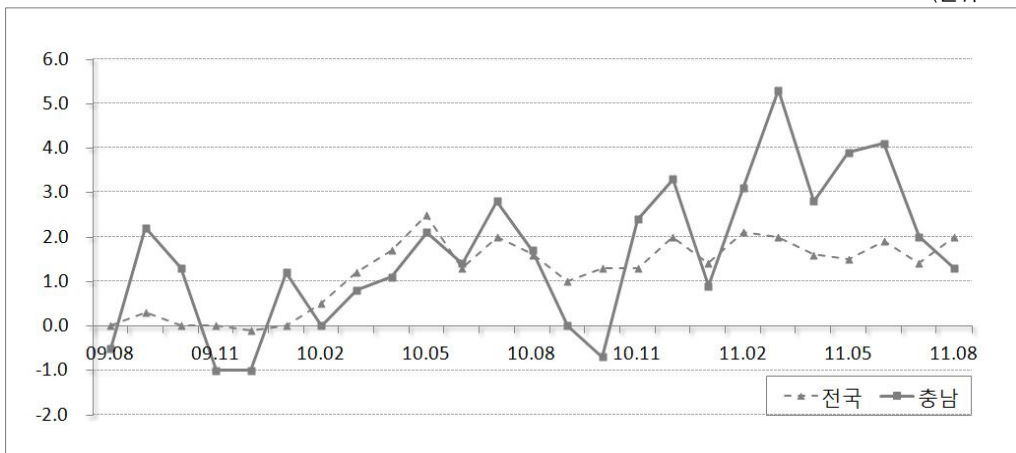
- 8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9%,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647천명으로 전년동월(1,616천명)보다 31천명(+1.9%)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043천명으로 전년동월(1,032천명)보다 11천명(+1.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취업자]

- 8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전월대비 0.8% 감소
 - 농림어업 181천명(-6.8%), 광공업 205천명(+1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33천명(+1.2%)으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8월 충남의 실업자는 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2.4%)대비 0.1%p 감소한 2.3%

6. 금 융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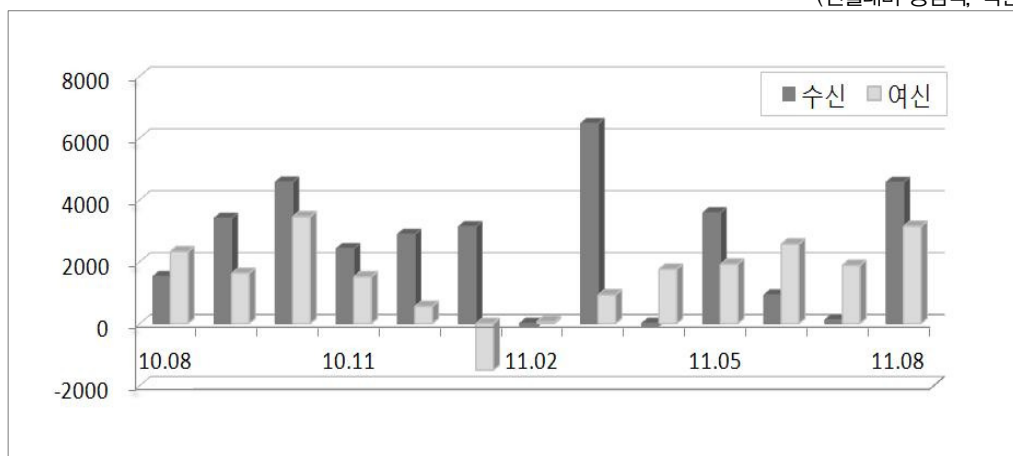
- 8월말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6조 1,351억원, 비은행기관 28조 9,776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5조 1,127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지자체 교부금 및 법인 여유자금 등이 예금으로의 유입 및 정기예금 증가세 지속으로 수신 큰 폭 증가 [7월 +446억원 → 8월 +4,040억원]
 - 비은행기관 : 자산운용사의 MMF환매 축소 및 주식형 펀드 신규자금 유입, 신탁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의 증가로 비은행기관 수신 증가로 전환 [7월 -328억원 → 8월 +518억원]
 - 총 수신증감액 : 7월 +118억원 → 8월 +4,558억원

[여신]

- 8월말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3조 4,883억원, 비은행기관 15조 8,834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39조 3,717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용 차입수요 등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으로 예금은행 여신 증가세 지속 [7월 +1,235억원 → 8월 +1,204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가계대출 증가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폭 확대 [7월 +642억원 → 8월 +1,937억원]
 - 총 여신증감액 : 7월 +1,877억원 → 8월 +3,141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8월 충남의 부도율은 0.18%로 전월대비 0.01%p 하락
 - 지역별로는 천안 0.27%, 홍성 0.06%, 논산 0.15%, 공주 0.65, 서산 0.02%을 나타냄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연중	8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등락	전년동월대비 등락
충 남	0.17	0.22	0.12	0.12	0.19	0.18	-0.01	-0.04
천 안	0.19	0.25	0.21	0.25	0.34	0.27	-0.07	0.02
홍 성	0.33	0.65	0.04	0.02	0.00	0.06	0.06	-0.59
논 산	0.20	0.00	0.06	0.00	0.22	0.15	-0.07	0.15
공 주	0.02	0.00	0.11	0.00	0.00	0.65	0.65	0.65
서 산	0.05	0.05	0.00	0.00	0.00	0.02	0.02	-0.03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8월 중 부도금액은 20억 9천만원으로 전월보다 3억4천만원 증가
 - 제조업 : 7월 15억 5천만원 → 8월 15억 9천만원
 - 건설업 : 7월 0원 → 8월 3억 3천만원
 - 서비스업 : 7월 2억 → 8월 1억 4천만원
- 8월 중 부도업체수는 3개로 전월(2개)보다 1개 증가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7.4	7.4	11.1	15.5	15.9	8.5	0.4
	건설업	7.4	5.0	0.0	0.0	3.3	-4.1	3.3
	서비스업	6.3	1.6	2.4	2.0	1.4	-4.9	-0.6
	기타	2.1	0.2	0.3	0.0	0.3	-1.8	0.3
	합계	23.2	14.2	13.8	17.5	20.9	-2.3	3.4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0	0	0	2	2	2
	건설업	0	0	0	0	0	0	0
	서비스업	0	0	0	2	1	1	-1
	기타	0	0	0	0	0	0	0
	합계	0	0	0	2	3	3	1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8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176개로 전월(182개)보다 6개 감소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8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1,504,930㎡로 전월대비 187.8%, 전년동월대비 208.9% 각각 증가
- 8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46.2%), 공업용(19.5%), 상업용(10.0%)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487,208	723,947	669,908	522,989	1,504,930	208.9	187.8	
주거용	103,542	207,651	164,762	136,561	694,570	570.8	408.6	
상업용	93,581	125,688	112,341	97,719	150,254	60.6	53.8	
농수산용	36,727	49,716	72,901	81,497	58,844	60.2	-27.8	
공업용	130,556	182,288	176,240	133,060	294,007	125.2	121.0	
기 타	122,802	158,604	143,664	74,152	307,255	150.2	314.4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 8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456,491㎡로 전월대비 6.8%, 전년동월대비 5.6% 각각 증가
- 8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33.7%), 주거용(25.8%), 상업용(16.6%)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432,427	700,162	655,836	427,285	456,491	5.6	6.8	
주거용	72,635	157,476	141,908	107,001	117,547	61.8	9.9	
상업용	84,053	189,697	116,544	82,105	75,662	-10.0	-7.8	
농수산용	43,427	44,384	52,338	67,075	49,472	13.9	-26.2	
공업용	127,264	212,889	148,130	112,518	153,685	20.8	36.6	
기 타	105,048	95,716	196,916	58,586	60,125	-42.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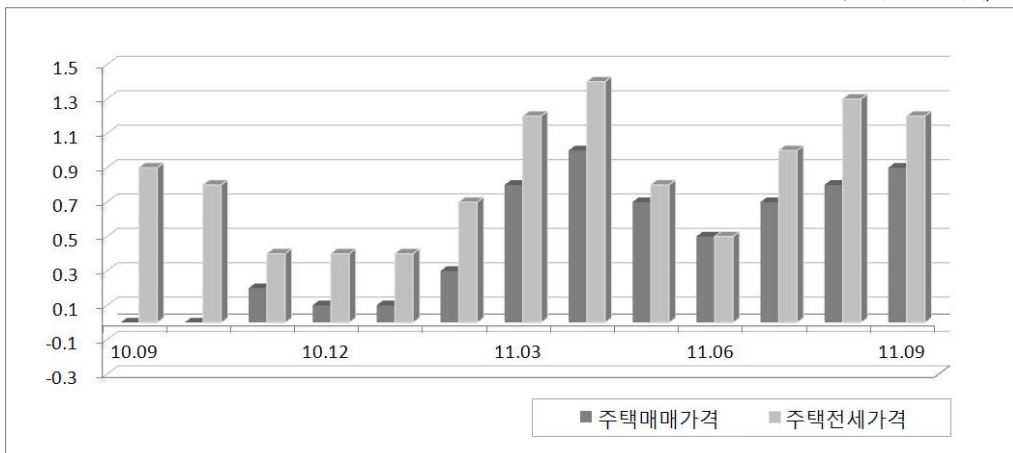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9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6.4%, 전월대비 0.9% 각각 상승
 - 가을 이사철의 영향 및 지역개발 호재로 인해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아산(+1.3%), 천안 동남구(+1.0%) 지역이 주요 상승지역이며, 아파트 및 단독·연립 주택 모두 상승
- 9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0.6%, 전월대비 1.2% 각각 상승
 - 전세선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을 이사수요 등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주요 상승지역은 아산(+2.1%), 천안 동남구(+1.1%) 지역이며, 아파트,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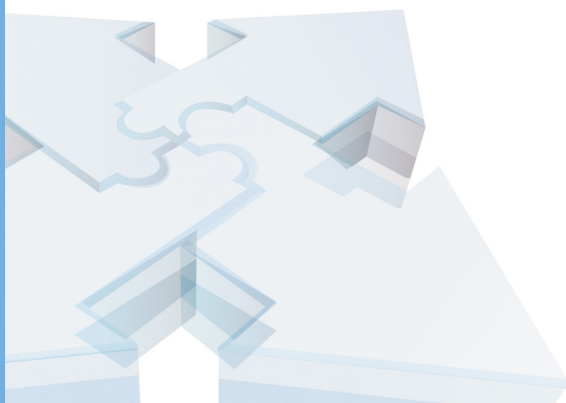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1.9.21] 충청남도 재능나눔 협약

-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등 17개 기관·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술·회계 등 자문지원 등 ‘재능나눔’ 협약 체결

['11.9.26]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 영업점 이전

- 신용보증이용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충남 서산시 고운로 168번지 신한은행 서산지점(지점장 정향용) 2층으로 이전하여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 등 5개 시·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신용보증 지원

['11.9.26] 충청남도과 세종시간 상생발전 연구용역 설명회

- 충남도청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과 도 및 시·군 관계관 20여명이 참석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 선정 등 논의

['11.9.27] 한화, 제57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후원협약

-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억원 상당의 ‘백제의 사계(四季)’를 주제로 한 ‘백제불꽃쇼’ 행사 후원

- 오프닝은 영화 OST '디파추어'(Naoki Sato)
- 1막 (봄) : '김수철의 꽃의 동화' 및 '로시니의 타란텔라(Tarantella)'
- 2막(여름) : '다루드의 샌드스톰(Sand Storm)'
- 3막(가을) : '조수미의 위 아더 챔피언'
- 4막(겨울) : 비달디의 사계 중 '겨울'
- 5막(다시 맞는 봄) : '한화 앤섬', 클로징

['11.9.29~9.30] 2011년 3/4분기 지역고용정책 협의회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창원시 창원호텔(동백홀)에서 시·도 및 고용센터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등 토론

['11.9.30] 제18회 충남기업인 대회

-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유병기 도의회 의장, 도내 기업인 및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과 시상식, 성공사례 발표 등 진행
- 종합·경영·기술·수출·창업 등 5개 우수 기업과 우수기업인 5명, 모범사원 18명 등 수상

- 종합대상 : (주)동해기계항공(대표 양창학)
 - 경영 (주)유아이헬리콥터, 기술 (주)대성케미칼, 수출 (주)제닉, 창업 (주)버금시스템
- 우수기업인상 : 에프엔에스테크(주) 김팔곤·한경희, (주)한일그린텍 김종규, (주)하은산업 이재준, 에스이피엔씨(주) 김태진, 대륙테크놀로지(주) 문철수 대표 등

['11.10.1~10.9] 제57회 백제문화제

- 공주 금강신관공원 및 부여 구드래공원 등 주무대와 공주·부여 일원에서 개최
- 개막식은 ‘갯위강국의 꿈! 무령왕의 부활’을 주제로 디키즈아우라 및 힙합비보이 공연, 혼불점화, 창작 뮤지컬 ‘백제! 다시서다’, 백제불꽃쇼 행사 진행
- 웅진골장터-천년의 맛 집, 백제마을, 백제유적 발굴 현장, 주거공간 전시 및 대장간 시연 백제문화상품전국공모전, 국제창작무용경연대회, 전국고교학생백일장대회 등 경연, 웅진성퍼레이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매사냥 시연 등
- 총 관람객수가 76만1000명, 경제적 파급효과 525억원으로 분석

['11.10.4] 2011년 제2차 충남고용포럼

-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주관으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에서 도·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노사협력 기반의 지역 거버넌스 체제구축 등 토론

['11.10.5] 대·지역경제 위기대응 테스크포스팀 구성

- 유럽발 금융위기와 미국 더블딥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책 모색 목적
- 한국은행,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충남경제진흥원 등 경제 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수출입동향분석, 기업애로분석, 중소기업지원 등 4개 팀 12명으로 구성(단장 남궁영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11.10.5]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토론회

-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0월 5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해당 시·군의회 의원, 지역발전위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
- 주제발표(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토론회(좌장 한남대 정순오 교수, 토론자 목원대 김혜천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종호 교수,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등 11명)

['11.10.7] 1사 1하천 가꾸기 협약 체결

- 아산시 탕정면 매곡천에서 기업과 환경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삼성토탈, 현대제철, 위니아만도, 풍농, 한솔제지 천안공장 등과 샛강·실개천 등 하천 살리기 프로그램 등 발굴·참여 등 협약 체결
- 참여 기업·단체는 88개로 기업 폐수처리 공정 개선과 하천 수질 모니터링, 수생식물 식재, 환경교육 등 다양한 수질보전 활동 전개

['11.10.7]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 및 충남도정 정책토론회

-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산업단지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정책협력운영위원 등 23명이 참석하여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방안 등 토론

['11.10.9] 2012년 농촌정비사업 14개 권역 선정

- 3농혁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권역단위 및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상에 권역별로 3~5년간 25억~100억 투자, 농촌마을 종합정비, 전원마을 조성, 테마공원 조성, 녹색 농촌마을 조성 등을 융·복합, 패키지화해 집중 지원
- 공주시 정안면 아름풀권역, 공주 반포 도자, 보령 도화담과 의평, 부여 월명산, 서천 동백꽃, 홍성 용봉산, 예산 황새, 태안 벚가리·음포권역, 공주 이인권역과 아산 선장, 금산 남이, 부여 무량사, 예산 광시권역 등

['11.10.10] 2011년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 보고회

-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관계관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물가안정대책 보고회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

- 지방 공공요금 안정 기조 유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 물가불안 시기에 따른 특별대책 추진 등 강조

['11.10.13] 도내 25개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협약 체결

-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협약 참여 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달성과 도내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참여 약속

○ 건창여객(합), 온양교통운수(주), (주)서진물류, 청양산업(주), 극동건설(주), 범양건영(주), 근화제약(주), 대경폴리텍(주), 삼육식품, (주)삼천리금속, (주)신도리코아산공장, (주)세계에프엘, 아이에스동서(주)청양지점, (주)알테크노메탈, 인지에이엠티(주), 우창실업(주), (주)엠아이텍, (주)은성테크닉스, 애경화학(주)청양공장, (주)청화요업, KPX그린케미칼(주), 태성전장(주)천흥공장, (주)한국야쿠르트논산공장, 한국카모플라스트(주) 금산공장, 해태음료(주)

['11.10.13] 충남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

- 충남발전연구원(사회적경제연구회) 주관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방안, 그리고 충남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정책 논의
-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기반 강화, 지원체계 강화 등 3대 부문 강조

['11.10.14] 일진전기(주), 홍성일반산업단지 기공

-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이회창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진전기(주)가 조성하는 홍성일반산업단지 기공식 개최
- 2014년까지 1천383억원을 투자해 113만5천㎡(34만3천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2015년까지 일진전기(주)를 비롯한 일진그룹의 전자, 기계금속, 통신 등의 산업부품소재 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

['11.10.14~10.15]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 당서기 방문

- 옌벤주 「長安順」 당서기, 훈춘시 「王景友」 당서기 등이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양 지역간 경제무역 및 관광자원 교류 활성화에 대해 협의

['11.10.20] 2011년 충청남도 장애인 채용박람회

- 충청남도, 아산시,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아산시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아산시민체육관에서 개최
- 생산직을 비롯해 서비스직, 사무직, 사회복지직, 운전직 등 다양한 직종의 업체 53개가 참여하고, 창업상담, 직업선호도검사, 이력서무료사진촬영, 이력서 작성 및 클리닉, 이미지메이크업,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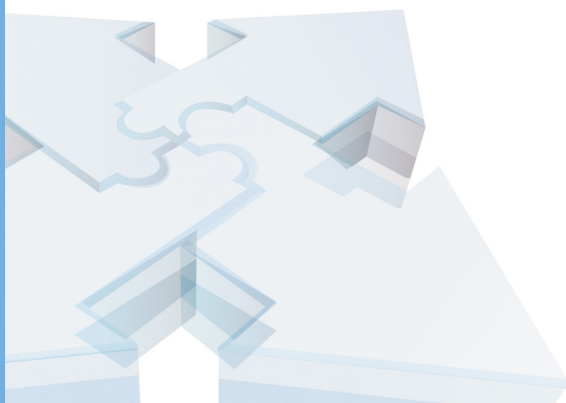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창의와 혁신의 원동력, 인력 다양성 관리
 - 글로벌 특허전쟁의 확산과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
 - 고객의 마음을 여는 체험 마케팅
 -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한국의 대응
 - 21세기의 新대륙, 아프리카를 잡아라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유럽 위기와 외환보유고 점검
 -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가능성
 - 경제고통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과학적 감수성'으로 시장의 정서를 읽는다
 - 진화하는 클라우드, 모바일의 변화를 이끈다
 - 기업들의 SNS 활동, 한계에 봉착했나 이제 시작인가?
 - 세계경제 리더십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 유럽 위기를 보는 체크 포인트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한국·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 중국 섬유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들의 경합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중 콘텐츠산업 현황과 산업협력 방향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전망과 국내산업에 대한 시사점
 - 산업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경로 변화
 - 인도 채권시장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선진국 경제 불안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망 및 시사점
 - 제로금리 하에서 연준 통화정책 수단의 효과와 한계
-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시사점
 - 신세대 신입사원 직장생활 적응현황 조사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28,034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101,342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31,234
1인당 GNI ¹⁾	억원	1,884	2,016	2,128	2,195	2,400
경제성장률	%	5.2	5.1	2.3	0.3	6.2
산업구조						
농림어업	%	3.2	2.9	2.7	2.8	2.6
광공업		27.4	27.5	28.1	28.0	30.8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2	1.3	1.8	2.0
건설업		7.5	7.4	7.0	6.9	6.5
서비스업 및 기타		59.7	60.0	60.8	60.4	58.2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1	80.3	77.6	74.4	81.2
취업자	천명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농림어업	%	7.7	7.4	7.2	7.0	6.6
광공업		17.6	17.2	16.9	16.4	17.0
건설업		7.9	7.9	7.7	7.3	7.4
서비스업 및 기타		66.5	67.2	67.9	69.3	69.1
실업률 (ILO기준)	%	3.5	3.2	3.2	3.6	3.7
경상수지		14,083	21,770	3,198	32,791	28,214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1,433	37,129	5,170	37,866	41,904
서비스수지		△13,332	△11,967	△5,734	△6,641	△11,229
소득수지		75	135	4,435	2,277	768
경상이전수지		△4,092	△3,527	△674	△712	△3,229
수출액	억달러	3,254	3,715	4,220	3,635	4,664
수입액		3,094	3,568	4,353	3,231	4,252
총저축률	%	30.8	30.8	30.5	30.2	32.0
민간비중	%	20.8	20.2	21.2	23.4	25.2
정부비중		10.0	10.6	9.3	6.8	6.8
총자본형성	십억원	268,216	277,729	277,773	240,412	277,460
최종소비지출	%	69.0	69.1	70.0	70.1	67.8
민간비중	%	54.5	54.4	54.7	54.1	52.5
정부비중		14.5	14.7	15.3	16.0	15.4
생산자물가상승률	%	0.9	1.4	8.6	-0.2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2.5	4.7	2.8	2.9

주 : 1) 당해년 경사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 경제지표 (2011.10.4기준)

금리

구 분	'09말	'10말	'11.8말	9.30	10.3	10.4	전일비	'10말비
콜금리(1일),%	2.01	2.49	3.27	3.26	-	3.28	0.02	0.79
CD(91일),%	2.86	2.80	3.59	3.58	-	3.58	0.00	0.78
국고채(3년),%	4.41	3.38	3.49	3.55	-	3.46	△0.09	0.08
국고채(5년),%	4.92	4.08	3.62	3.66	-	3.55	△0.11	△0.53
회사채(3년, AA-),%	5.53	4.27	4.23	4.36	-	4.28	△0.08	0.01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액억원)	707	△1,488	2,848	△496	-	2,661	3,157	4,149

주가

구 분	'09말	'10말	'11.8말	9.30	10.3	10.4	전일비	'10말비
KOSPI지수	1,682.77	2,051.00	1,880.11	1,769.65	-	1,706.19	△3.59%	△16.81%
·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42,856	53,969	59,398	65,514	-	66,488	974	12,519
KOSDAQ지수	513.57	510.69	493.44	449.66	-	436.13	△3.01%	△14.60%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01,051	39,023	△51,145	△14,379	-	△4,789	9,590	

※ 기간중 : '09말('09.1.1~12.31), '10말('10.1.1~12.31), '11.8말('11.8.1~8.31), 10.4('11.10.1~10.4).

환율

구 분	'09말	'10말	'11.8말	9.30	10.3	10.4	전일비	'10말비
₩/US(종가)	1,164.50	1,134.80	1,066.80	1,178.10	-	1,194.00	△1.33	△4.96
선물환(NDF, 1개월물)	1,165.90	1,137.00	1,069.10	1,180.60	-	1,196.50	△1.33	△4.97
₩/CNY	169.47	170.43	167.24	184.50	-	187.65	△1.68	△9.17
₩/¥100	1,264.52	1,393.59	1,393.42	1,538.99	-	1,558.34	△1.24	△10.57
¥/US\$	92.09	81.43	76.56	76.55	-	76.62	△0.09	6.28
US\$/EUR	1,4325	1,3233	1,4432	1,3556	-	1,3213	△2.53	△0.15
CNY/US\$	6,8279	6,6100	6,3787	6,3866	-	6,3859	0.01	3.51

※ '10년 평균 환율 : (₩/US\$) 1,156.3원, (₩/¥100) 1,320.6원.

※ '11년 평균 환율('11.1.1~현재) : (₩/US\$) 1,096.2원, (₩/¥100) 1,362.6원.

※ 전일비(%) 및 '10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9말	'10말	'11.8말	9.30	10.3	10.4	전일비	'10말비
LIBOR(Dollar, 3월, %)	0.25	0.30	0.33	0.37	0.38	0.38	0.00	0.08
T/NOTE(10년, %)	3.83	3.29	2.23	1.92	1.76	1.82	0.06	△1.47
DOW	10,428	11,578	11,614	10,913	10,655	10,809	1.44%	△6.64%
NIKKEI	10,546	9,937	8,955	8,700	8,545	8,460	△1.00%	△17.29%
SANGHAI COMP	3,277	2,808	2,564	2,359	-	-	△0.29%	△15.98%
외평채가산금리('13년물, bp)	59	175	139	199	199	201	2	26
CDS (5년, bp)	86	95	128	220	227	229	2	134
CRS (1년, %)	2.25	1.10	1.69	0.97	0.97	0.85	△0.12	△0.58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09말	'10말	'11.8말	9.30	10.3	10.4	전일비	'10말비
DUBAI (\$/배럴)	78.04	88.80	109.73	100.61	97.41	96.76	△0.65	7.96
WTI 선물 (\$/배럴)	94.75	94.84	88.81	79.20	77.61	75.67	△1.94	△19.17
Brant 선물 (\$/배럴)	77.93	94.75	114.85	102.76	101.71	99.79	△1.92	5.04
원당(센트/파운드)	26.95	32.12	29.70	25.30	24.90	24.70	△0.80%	△23.10%
밀 (센트/부셸)	542	794	792	609	620	604	△2.58%	△23.95%
대두 (센트/부셸)	1,049	1,403	1,458	1,179	1,178	1,160	△1.53%	△17.32%
옥수수 (센트/부셸)	415	629	768	593	593	588	△0.89%	△6.56%
동 (\$/톤)	7,377	9,665	9,219	7,160	6,820	6,812	△0.12%	△29.52%
알루미늄 (\$/톤)	2,242	2,468	2,442	2,243	2,159	2,171	0.56%	△12.03%

※ '10년 평균 유가 : (Dubai) 78.13\$, (WTI) 79.61\$. ※ '11년 평균 유가('11.1.1~현재) : (Dubai) 106.01\$, (WTI) 95.58\$.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13,613	551,484	579,740	651,338	—
전국대비 구성비 ²⁾	%	5.85	5.96	6.21	6.71	—
GRDP 성장률 ²⁾	%	12.6	7.6	7.0	8.9	—
1인당 GRDP	만원	2,664	2,848	2,983	3,370	—
산업구조	—					
농림어업	%	7.6	6.9	7.2	6.6	—
광공업		47.2	49.2	49.8	53.4	—
전기가스수도업		3.8	4.3	4.8	5.0	—
건설업		8.8	7.9	8.2	7.3	—
서비스업 및 기타		32.5	31.6	30.1	27.8	—
15세이상인구	천명	1,517	1,547	1,564	1,588	1,613
경제활동인구	천명	991	1,021	996	991	1,003
취업자	천명	967	998	973	961	974
농림어업	%	23.6	21.9	19.5	18.8	16.8
광공업		15.5	17.0	17.4	17.1	19.0
건설업		5.8	6.6	5.7	5.8	5.6
서비스업 및 기타		55.1	54.5	57.3	58.3	58.5
실업자	천명	24	23	24	29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26	568	597	610
경제활동참가율	%	65.3	66.0	63.7	62.4	62.2
실업률	%	2.4	2.2	2.4	3.0	2.9
고용률	%	63.8	64.5	62.2	60.5	60.4
무역수지	백만달러	16,599	21,149	13,380	20,299	29,161
수출액	백만달러	38,961	47,823	42,936	39,428	54,054
수입액		22,362	26,674	29,556	19,129	24,893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4	4.9	2.7	3.0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¹⁾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천안시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공주시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보령시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아산시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서산시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논산시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계룡시 ¹⁾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금산군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연기군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부여군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서천군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청양군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홍성군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예산군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태안군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당진군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충청남도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주 : 1) 당해년가격 2)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8 08	121.7	0.3	3.0	3.9	101.5	0.0
09	121.9	0.1	2.6	3.4	101.4	-0.1
10	122.4	0.4	2.7	3.3	101.5	0.1
11	122.2	-0.1	2.0	2.8	101.1	-0.4
12	121.0	-1.0	-0.3	1.4	99.8	-1.3
2009 01	119.2	-1.5	-3.3	-0.5	98.0	-1.8
02	117.6	-1.3	-5.5	-2.1	96.4	-1.5
03	116.5	-1.0	-6.9	-3.4	95.2	-1.3
04	116.1	-0.3	-6.9	-4.0	94.6	-0.6
05	116.5	0.4	-5.6	-3.9	94.6	0.1
06	118.2	1.4	-2.5	-2.6	95.7	1.0
07	119.7	1.3	0.3	-1.3	96.6	0.9
08	120.8	0.9	2.1	-0.2	97.2	0.5
09	122.3	1.2	4.6	1.4	98.0	0.9
10	123.6	1.1	6.7	2.9	98.8	0.7
11	124.8	1.0	8.5	4.2	99.4	0.6
12	125.6	0.6	9.3	5.1	99.6	0.3
2010 01	126.5	0.7	10.2	6.0	100.0	0.4
02	127.5	0.8	10.7	6.9	100.4	0.4
03	128.4	0.6	10.7	7.5	100.7	0.3
04	128.9	0.4	9.9	7.9	100.7	0.0
05	129.6	0.5	9.1	8.3	100.8	0.1
06	130.4	0.7	8.7	8.6	101.1	0.3
07	131.2	0.6	8.3	8.7	101.4	0.2
08	131.8	0.4	7.6	8.4	101.4	0.0
09	132.1	0.2	6.6	7.8	101.2	-0.2
10	131.9	-0.1	5.2	6.8	100.7	-0.5
11	131.9	-0.0	4.1	5.8	100.1	-0.4
12	132.8	0.7	4.6	5.7	100.2	0.1
2011 01	134.8	1.5	6.5	6.4	101.3	1.1
02	135.8	0.8	7.0	6.5	101.5	0.1
03	136.1	0.2	6.3	6.0	101.1	-0.4
04	136.1	0.0	5.4	5.4	100.5	-0.5
05	136.9	0.6	5.7	5.6	100.7	0.1
06	138.0	0.8	6.3	5.9	101.0	0.4
07	138.3	0.3	5.9	5.7	100.9	-0.2
08	138.4	0.0	5.1	5.1	100.4	-0.4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는 부록 참조.

시장경기동향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8	57,6	85,8	58,8	84,3	52,9	72,9
2009	68,0	79,1	60,5	78,0	63,6	77,6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0 2/4	66,6	92,6	61,9	92,1	67,0	87,4
3/4	80,6	94,8	79,8	96,1	76,9	89,3
4/4	73,0	95,6	73,8	96,3	70,6	93,3
2011 1/4	54,8	91,9	53,6	90,7	64,3	90,5
2/4	71,8	95,7	67,6	100,0	69,6	93,5
2008 09	77,4	90,5	77,4	92,9	71,4	84,5
10	76,2	95,2	69,0	86,9	69,0	88,1
11	91,7	86,9	82,1	91,7	82,1	88,1
12	71,4	85,7	61,9	82,1	65,5	79,8
2010 01	52,4	78,6	45,2	76,2	57,1	76,2
02	64,3	97,5	70,2	95,1	66,7	76,9
03	66,7	107,7	59,5	107,7	69,0	87,5
04	71,4	105,1	70,2	105,3	71,4	96,2
05	69,0	94,0	58,3	96,1	70,2	87,2
06	59,5	78,8	57,1	75,0	59,5	78,9
07	66,7	73,8	60,7	76,2	70,0	82,9
08	77,4	85,0	75,0	86,5	73,8	82,5
09	97,6	125,6	103,6	125,6	86,9	102,4
10	66,7	114,3	67,9	121,3	69,0	103,8
11	94,0	98,8	96,4	100,0	85,7	95,2
12	58,3	73,8	57,1	67,5	57,1	80,8
2011 01	39,3	79,3	36,9	86,3	53,6	79,8
02	53,6	81,0	48,8	76,2	66,7	89,3
03	71,4	115,5	75,0	109,5	72,6	102,4
04	84,6	109,5	77,2	120,2	70,3	100,0
05	70,7	100,9	67,3	92,2	70,7	93,1
06	60,1	76,7	58,3	87,6	67,7	87,3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	102,2	-	104,9	-	91,7

자료 : 월간 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0 2/4	254,505	5.6	-5.7	188,116	9.1	-3.9
3/4	277,463	11.9	9.0	218,408	17.9	16.1
4/4	293,129	10.0	5.6	194,620	7.8	-10.9
2011 1/4	355,080	31.5	21.1	225,657	15.2	15.9
2/4	350,386	37.7	-1.3	222,696	18.4	-1.3
2008 08	81,952	6.6	0.5	63,234	6.8	2.1
09	84,601	3.5	3.2	60,001	1.3	-5.1
10	87,796	11.4	3.8	58,930	9.1	-1.8
11	85,471	1.2	-2.6	57,330	-0.1	-2.7
12	93,315	8.5	9.2	64,231	6.2	12.0
2010 01	88,900	-1.3	-4.7	63,066	-6.5	-1.8
02	93,492	30.5	5.2	70,492	38.0	11.8
03	87,608	5.2	-6.3	62,254	4.2	-11.7
04	81,181	3.9	-7.3	58,341	6.4	-6.3
05	91,106	6.1	12.2	66,504	8.2	14.0
06	82,218	6.7	-9.8	63,271	12.6	-4.9
07	91,460	12.2	11.2	72,044	16.3	13.9
08	87,203	6.4	-4.7	69,803	10.4	-3.1
09	98,800	16.8	13.3	76,561	27.6	9.7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03	112,386	28.3	3.3	70,159	12.7	0.3
04	111,521	37.4	-0.8	69,653	19.4	-0.7
05	121,238	33.1	8.7	78,018	17.3	12.0
06	117,625	43.1	-3.0	75,025	18.6	-3.8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8 09	757,287	-	1,073	517,914	50,474	186,449	2,450
10	759,840	30,640	2,553	520,191	50,459	186,734	2,456
11	761,629	-	1,789	521,755	50,515	186,892	2,467
12	762,287	29,393	658	522,574	50,504	186,751	2,458
2009 01	765,469	27,740	3,182	525,564	50,562	186,879	2,464
02	767,231	26,776	1,762	527,267	50,542	186,974	2,448
03	769,205	25,176	1,974	529,048	50,529	187,188	2,440
04	771,889	24,665	2,684	531,278	50,660	187,512	2,439
05	774,965	24,922	3,076	533,905	50,693	187,921	2,446
06	778,867	26,671	3,902	537,455	50,737	188,220	2,455
07	781,641	26,444	2,774	540,068	50,703	188,400	2,470
08	783,277	27,063	1,636	541,673	50,630	188,502	2,472
09	786,508	29,221	3,231	544,551	50,713	188,738	2,506
10	789,874	30,034	3,366	547,552	50,727	189,075	2,520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10	116.7	3.0	118.7	3.4	126.8	22.5	116.8	2.9	116.3	3.5	116.6	3.0
2010 2/4	116.3	2.7	118.3	3.0	120.7	12.3	116.5	2.6	116.0	3.5	115.9	2.5
3/4	117.3	2.9	119.2	3.1	133.0	29.9	117.4	2.8	116.9	3.5	117.1	2.9
4/4	118.2	3.7	120.1	3.9	142.3	43.6	118.3	3.5	117.7	3.9	118.2	3.9
2011 1/4	120.3	4.5	122.6	4.8	142.2	27.9	120.3	4.4	120.1	4.7	120.6	4.8
2/4	121.1	4.1	122.7	3.7	128.7	6.6	121.1	3.9	120.5	3.9	121.4	4.7
2009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1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03	115.5	2.3	117.5	2.8	117.4	9.4	115.5	2.0	115.4	3.0	115.6	2.6
04	116.2	2.7	118.5	3.1	124.8	11.9	116.3	2.6	116.0	3.3	115.9	2.4
05	116.4	2.8	118.5	3.2	122.0	11.4	116.7	2.8	116.0	3.6	116.0	2.6
06	116.2	2.6	118.0	2.8	115.4	13.7	116.4	2.5	115.9	3.6	115.8	2.4
07	116.7	2.5	118.5	2.7	121.1	18.5	116.9	2.5	116.1	3.1	116.4	2.5
08	117.0	2.6	118.8	2.7	127.3	23.4	117.1	2.5	116.6	3.2	116.9	2.6
09	118.2	3.6	120.4	4.0	150.7	47.9	118.3	3.5	118.0	4.3	117.9	3.4
10	118.4	4.0	120.7	4.6	150.6	50.0	118.4	3.8	118.1	4.6	118.4	4.2
11	117.7	3.2	119.3	3.4	136.0	42.0	117.8	3.2	117.2	3.4	117.7	3.4
12	118.5	3.7	120.3	3.8	140.2	38.8	118.6	3.5	117.9	3.8	118.4	3.9
2011 01	119.5	4.2	121.6	4.5	140.9	33.2	119.5	4.1	119.2	4.4	119.6	4.4
02	120.6	4.8	123.1	5.2	143.0	29.4	120.6	4.8	120.5	5.1	120.9	5.1
03	120.9	4.7	123.1	4.8	142.8	21.6	120.8	4.6	120.6	4.5	121.3	4.9
04	120.9	4.0	123.0	3.8	136.8	9.6	120.9	4.0	120.3	3.7	121.3	4.7
05	121.0	4.0	122.5	3.4	125.4	2.8	121.0	3.7	120.5	3.9	121.3	4.6
06	121.3	4.4	122.7	4.0	123.8	7.3	121.3	4.2	120.6	4.1	121.5	4.9
07	122.0	4.5	123.5	4.2	136.5	12.7	122.0	4.4	121.4	4.6	122.3	5.1
08	123.1	5.2	124.9	5.1	147.2	15.6	123.2	5.2	122.6	5.1	123.2	5.4
09	123.3	4.3	125.0	3.8	142.4	-5.5	123.3	4.2	122.8	4.1	123.4	4.7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0 2/4	13,434	44.7	14.7	6,204	43.2	8.0	7,230
3/4	14,633	32.5	8.9	6,360	26.4	2.5	8,273
4/4	14,273	20.7	-2.5	6,583	18.4	3.5	7,690
2011 1/4	13,819	18.0	-3.2	7,563	31.6	14.9	6,256
2/4	14,883	10.8	7.7	8,583	38.3	13.5	6,300
2009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1	84.9	-6.4	1,812	47.7	-8.9	1,849
02	3,651	53.1	-0.3	1,891	25.6	4.4	1,760
03	4,402	51.4	20.6	2,043	38.8	8.0	2,359
04	4,358	44.6	-1.0	1,913	39.4	-6.4	2,445
05	4,483	48.7	2.9	1,928	49.3	0.8	2,555
06	4,593	40.9	2.5	2,363	41.6	22.6	2,230
07	4,898	41.0	6.6	2,064	34.3	-12.7	2,834
08	4,935	38.6	0.8	2,071	25.2	0.3	2,864
09	4,800	19.7	-2.7	2,225	20.7	7.4	2,575
10	4,994	24.6	4.0	2,031	13.2	-8.7	2,963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33	29.3	2.5	2,541	40.2	5.7	2,193
02	4,217	15.5	-10.9	2,217	17.3	-12.8	2,000
03	4,867	10.6	15.4	2,835	38.8	27.9	2,032
04	4,868	11.7	0.0	2,674	39.8	-5.5	2,194
05	5,015	11.9	3.0	2,781	44.3	4.0	2,234
06	4,957	7.9	-1.2	3,130	32.5	12.5	1,827
07	5,086	3.8	2.6	2,828	37.0	-9.6	2,258
08	4,926	-0.2	-3.1	2,868	38.5	1.4	2,058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08	1,564	996	973	24	568	2.4	62.2
2009	1,588	991	961	29	597	3.0	60.5
2010	1,613	1,003	974	29	610	2.9	60.4
2010 2/4	1,610	1,028	1,004	24	582	2.4	62.3
3/4	1,616	1,036	1,006	29	581	2.8	62.3
4/4	1,623	1,007	981	26	615	2.6	60.4
2011 1/4	1,630	963	935	29	667	3.0	57.4
2/4	1,637	1,061	1,040	21	577	1.9	63.5
2009 08	1,592	1,016	989	26	577	2.6	62.1
09	1,594	1,032	1,005	27	562	2.6	63.1
10	1,596	1,040	1,012	28	556	2.7	63.4
11	1,598	999	972	27	599	2.7	60.8
12	1,600	939	912	27	661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672	4.4	55.5
02	1,605	936	896	40	669	4.3	55.8
03	1,606	957	933	24	650	2.5	58.1
04	1,608	1,015	989	25	593	2.5	61.5
05	1,610	1,031	1,006	25	579	2.5	62.5
06	1,612	1,037	1,015	22	575	2.1	63.0
07	1,614	1,037	1,007	30	578	2.9	62.4
08	1,616	1,032	1,006	25	585	2.4	62.3
09	1,618	1,039	1,006	33	580	3.2	62.1
10	1,620	1,033	1,005	28	587	2.7	62.0
11	1,622	1,020	995	25	602	2.4	61.3
12	1,625	968	942	26	657	2.6	58.0
2011 01	1,627	923	899	24	705	2.6	55.2
02	1,630	955	924	31	675	3.3	56.7
03	1,632	1,012	982	30	620	3.0	60.2
04	1,635	1,042	1,017	25	593	2.4	62.2
05	1,638	1,064	1,046	18	574	1.7	63.9
06	1,640	1,076	1,057	19	564	1.7	64.5
07	1,644	1,051	1,027	24	593	2.3	62.5
08	1,647	1,043	1,019	24	605	2.3	61.9

자료 : 충청지역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0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총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19	0.33	0.20	0.02	0.05
2010 2/4	0.18	0.20	0.35	0.21	0.04	0.07
3/4	0.20	0.25	0.54	0.02	0.12	0.03
4/4	0.14	0.14	0.18	0.41	0.04	0.06
2011 1/4	0.41	0.55	0.69	0.09	0.16	0.00
2/4	0.11	0.21	0.05	0.02	0.04	0.00
2009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03	0.10	0.02	0.61	0.06	0.00	0.08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09	0.09	0.10	0.27	0.07	0.00	0.02
10	0.07	0.02	0.01	0.74	0.02	0.04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03	0.87	1.39	0.43	0.05	0.36	0.00
04	0.10	0.17	0.10	0.00	0.00	0.00
05	0.12	0.21	0.04	0.06	0.11	0.00
06	0.12	0.25	0.02	0.00	0.00	0.00
07	0.19	0.34	0.00	0.22	0.00	0.00
08	0.18	0.27	0.06	0.15	0.65	0.02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10	210,392	-22.1	6,636,749	-7.9	6,347,493	19.7	141,946	-25.3
2010 2/4	49,753	-35.7	2,096,181	18.0	1,903,299	45.3	38,107	-25.6
3/4	41,451	-30.3	1,447,506	-17.2	1,287,048	9.9	34,666	-23.2
4/4	73,578	28.5	1,693,669	8.0	1,742,905	-8.5	29,129	-30.8
2011 1/4	44,502	-2.4	1,428,130	2.1	1,314,241	-8.4	25,309	-36.8
2/4	58,090	16.8	1,987,829	-5.2	2,080,921	9.3	22,308	-41.5
2009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03	13,905	-58.3	537,911	-7.3	701,791	69.8	12,906	-2.1
04	14,459	-48.9	637,912	63.3	542,246	54.5	12,973	0.5
05	16,252	-30.5	591,696	21.4	609,255	16.6	12,621	-2.7
06	19,042	-25.8	866,573	11.0	751,798	72.4	12,513	-0.9
07	16,773	-26.7	580,512	55.6	461,472	39.2	12,222	-2.3
08	14,787	-21.5	487,208	-42.4	432,427	-5.8	11,593	-5.1
09	9,891	-44.4	379,786	-28.2	393,149	3.2	10,851	-6.4
10	19,172	23.3	400,493	-8.9	464,780	-3.0	10,285	-5.2
11	21,637	18.6	812,945	64.2	666,098	34.5	9,824	-4.5
12	32,769	39.7	480,231	-28.6	591,027	24.4	9,020	-8.2
2011 01	14,265	-3.5	414,632	3.7	255,721	-2.1	8,750	-37.3
02	12,164	-28.12	403,350	-12.7	358,003	-12.7	8,477	-35.7
03	18,073	-11.28	610,148	13.4	700,517	-0.2	8,082	-37.4
04	20,501	-11.29	593,974	-6.9	724,923	33.7	7,620	-41.3
05	18,041	11.01	723,947	22.4	700,162	14.9	7,459	-40.9
06	19,548	2.6	669,908	-22.7	655,836	-12.8	7,229	-42.2
07	15,056	-10.2	522,989	-9.9	427,285	-7.4	6,903	-43.5
08	13,713	-7.3	1,504,930	208.9	456,491	5.6	6,546	-43.5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8 09	96.5	1.1	0.8	93.5	100.7	96.6	89.8	3.4	0.9	86.6	92.8	93.1
10	96.6	1.2	0.2	93.8	100.7	96.6	90.2	3.4	0.5	87.3	92.8	93.1
11	96.6	1.3	0.0	93.8	100.5	96.5	90.4	3.5	0.2	87.6	92.8	93.1
12	96.4	1.1	-0.2	93.6	100.3	96.9	90.2	3.3	-0.2	87.3	92.8	93.1
2009 01	96.0	0.9	-0.3	93.2	100.0	97.0	89.9	3.0	-0.4	86.7	92.8	93.3
02	95.8	0.9	-0.2	92.9	100.0	97.0	89.5	2.8	-0.4	86.3	92.6	93.3
03	95.7	0.7	-0.2	92.6	99.8	97.0	89.4	2.5	-0.1	86.0	92.8	93.3
04	95.6	0.8	0.0	92.5	99.9	97.4	89.2	2.0	-0.2	86.0	92.2	93.3
05	95.5	0.6	-0.1	92.5	99.5	97.4	89.3	1.8	0.0	86.1	92.2	93.3
06	95.5	0.2	0.0	92.3	99.5	97.4	89.2	1.1	-0.1	86.0	92.0	93.3
07	95.4	-0.1	0.0	92.3	99.5	97.4	89.4	1.0	0.2	86.1	92.3	93.4
08	95.4	-0.3	0.0	92.4	99.1	97.4	89.4	0.5	0.1	86.2	92.3	93.4
09	95.7	-0.8	0.3	92.7	99.4	98.1	89.9	0.1	0.6	86.4	93.0	94.0
10	96.2	-0.5	0.5	93.0	100.0	98.3	90.2	0.0	0.3	86.7	92.9	96.3
11	96.3	-0.3	0.1	93.2	100.0	98.3	90.4	0.0	0.3	87.0	93.1	96.3
12	96.3	0.0	0.0	93.3	100.0	98.3	90.5	0.3	0.1	87.2	93.1	96.3
2010 01	96.3	0.3	0.0	93.4	100.0	98.3	90.6	0.8	0.1	87.3	93.2	96.3
02	96.4	0.6	0.1	93.6	100.0	98.3	90.8	1.4	0.2	87.6	93.2	96.3
03	96.6	0.9	0.1	93.8	100.0	98.3	91.2	2.0	0.5	88.1	93.8	96.4
04	96.4	0.8	-0.1	93.9	99.5	98.7	91.7	2.8	0.5	88.3	94.6	96.6
05	96.5	1.0	0.0	93.9	99.5	99.0	92.5	3.6	0.9	88.7	95.9	97.2
06	96.5	1.1	0.0	94.0	99.5	99.2	92.5	3.7	0.0	89.1	95.5	96.9
07	96.5	1.1	0.0	94.0	99.5	99.2	92.6	3.6	0.1	89.6	95.5	96.9
08	96.3	1.0	-0.2	94.1	98.9	99.2	92.8	3.7	0.2	90.1	95.5	97.0
09	96.4	0.7	0.0	94.2	98.9	99.4	93.6	4.1	0.9	90.6	97.0	97.6
10	96.4	0.3	0.0	94.3	98.9	99.4	94.4	4.6	0.8	91.1	98.2	98.6
11	96.6	0.3	0.2	94.6	98.9	100.0	94.7	4.7	0.4	92.0	97.9	99.1
12	96.7	0.4	0.1	94.8	98.9	100.0	95.1	5.1	0.4	92.7	97.9	99.1
2011 01	96.8	0.5	0.1	95.0	98.9	100.0	95.5	5.4	0.4	93.4	98.0	99.1
02	97.1	0.7	0.3	95.5	98.9	100.0	96.2	5.9	0.7	94.3	98.4	99.2
03	97.8	1.3	0.8	96.4	99.6	100.2	97.3	6.6	1.2	95.8	99.1	99.5
04	98.8	2.5	1.0	97.8	100.1	100.3	98.7	7.6	1.4	97.7	100.1	99.8
05	99.5	3.2	0.7	99.1	100.1	100.5	99.5	7.6	0.8	99.1	100.1	99.9
06	100.0	3.6	0.5	100.0	100.0	100.0	100.0	8.1	0.5	100.0	100.0	100.0
07	100.7	4.4	0.7	100.9	100.5	100.2	101.0	9.1	1.0	101.0	101.0	100.4
08	101.6	5.5	0.8	102.2	100.9	100.2	102.3	10.3	1.3	102.9	101.5	100.5
09	102.5	6.4	0.9	103.4	101.3	101.4	103.5	10.6	1.2	104.5	102.1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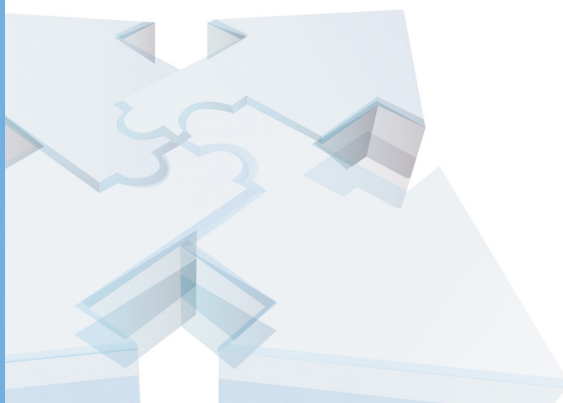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51-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2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8 08	768.0	0.5	158.2	0.5	126.7	0.7
09	766.3	-0.2	159.0	0.5	126.9	0.1
10	770.4	0.5	160.3	0.8	128.0	0.9
11	770.9	0.1	157.6	-1.7	131.4	2.6
12	770.6	-0.0	150.7	-4.4	131.3	-0.0
2009 01	761.3	-1.2	146.4	-2.9	131.9	0.4
02	753.9	-1.0	144.1	-1.5	125.8	-4.7
03	742.4	-1.5	144.1	-0.0	126.4	0.5
04	741.6	-0.1	145.3	0.8	125.2	-1.0
05	742.8	0.2	150.5	3.6	129.5	3.5
06	747.2	0.6	161.1	7.0	130.1	0.4
07	744.3	-0.4	171.9	6.7	131.1	0.8
08	744.5	0.0	181.0	5.3	130.9	-0.2
09	750.5	0.8	189.1	4.5	131.3	0.3
10	755.2	0.6	194.8	3.0	133.1	1.4
11	756.0	0.1	198.7	2.0	135.7	2.0
12	750.3	-0.8	202.3	1.9	138.4	2.0
2010 01	750.1	-0.0	205.0	1.3	139.4	0.7
02	752.0	0.3	206.7	0.8	141.1	1.2
03	756.6	0.6	208.4	0.8	140.0	-0.8
04	760.4	0.5	209.8	0.6	137.8	-1.6
05	762.6	0.3	212.4	1.3	135.4	-1.7
06	764.0	0.2	215.1	1.2	135.4	-0.0
07	765.2	0.2	216.8	0.8	137.9	1.9
08	764.8	-0.0	220.0	1.5	137.4	-0.4
09	762.1	-0.4	222.0	0.9	137.2	-0.2
10	755.6	-0.9	225.1	1.4	133.7	-2.5
11	753.5	-0.3	227.0	0.8	130.2	-2.6
12	755.2	0.2	226.8	-0.1	143.9	10.5
2011 01	760.2	0.7	228.6	0.8	164.4	14.2
02	767.9	1.0	229.5	0.4	174.6	6.2
03	771.7	0.5	228.9	-0.3	170.3	-2.5
04	773.9	0.3	228.9	0.0	162.7	-4.4
05	772.1	-0.2	231.5	1.1	169.0	3.8
06	774.3	0.3	235.5	1.7	174.2	3.1
07	777.1	0.4	237.2	0.7	177.1	1.6
08	776.2	-0.1	235.2	-0.9	174.2	-1.6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8 08	2,557,306.4	0.5	3,523,067.1	-0.3	1,832,424.7	-0.0
09	2,563,006.5	0.2	3,548,282.2	0.7	1,853,122.2	1.1
10	2,592,296.4	1.1	3,555,437.1	0.2	1,827,589.8	-1.4
11	2,586,037.0	-0.2	3,473,114.5	-2.3	1,841,902.1	0.8
12	2,553,407.0	-1.3	3,329,302.3	-4.1	1,827,831.6	-0.8
2009 01	2,537,137.4	-0.6	3,221,711.2	-3.2	1,688,079.5	-7.6
02	2,519,331.4	-0.7	3,104,932.5	-3.6	1,637,244.5	-3.0
03	2,505,141.8	-0.6	3,067,990.9	-1.2	1,547,558.1	-5.5
04	2,496,701.1	-0.3	3,077,398.4	0.3	1,480,643.4	-4.3
05	2,503,787.1	0.3	3,174,479.2	3.2	1,382,016.5	-6.7
06	2,549,210.5	1.8	3,366,406.4	6.0	1,356,663.9	-1.8
07	2,580,218.7	1.2	3,540,948.7	5.2	1,393,389.0	2.7
08	2,614,830.8	1.3	3,637,950.0	2.7	1,388,263.4	-0.4
09	2,656,591.7	1.6	3,713,543.7	2.1	1,414,917.2	1.9
10	2,696,393.7	1.5	3,788,025.5	2.0	1,445,091.1	2.1
11	2,749,918.8	2.0	3,888,837.2	2.7	1,485,408.1	2.8
12	2,803,504.0	1.9	4,012,875.2	3.2	1,507,421.8	1.5
2010 01	2,876,230.9	2.6	4,123,066.3	2.7	1,521,423.1	0.9
02	2,942,057.0	2.3	4,251,081.9	3.1	1,541,219.6	1.3
03	3,002,336.8	2.0	4,350,304.5	2.3	1,545,496.1	0.3
04	3,053,350.5	1.7	4,444,675.7	2.2	1,538,515.2	-0.5
05	3,102,286.7	1.6	4,559,333.1	2.6	1,546,980.5	0.6
06	3,142,582.9	1.3	4,646,511.6	1.9	1,590,161.8	2.8
07	3,165,124.5	0.7	4,752,875.8	2.3	1,620,703.0	1.9
08	3,197,543.0	1.0	4,825,096.9	1.5	1,631,801.1	0.7
09	3,230,304.1	1.0	4,870,082.1	0.9	1,646,806.1	0.9
10	3,262,241.5	1.0	4,884,486.6	0.3	1,654,152.0	0.4
11	3,288,050.9	0.8	4,859,316.4	-0.5	1,665,738.8	0.7
12	3,326,737.3	1.2	4,849,763.8	-0.2	1,637,603.9	-1.7
2011 01	3,378,911.3	1.6	4,895,456.4	1.0	1,657,597.6	1.2
02	3,410,428.5	0.9	4,883,305.4	-0.3	1,637,780.8	-1.2
03	3,444,055.8	1.0	4,861,682.9	-0.4	1,660,000.1	1.4
04	3,466,752.9	0.7	4,860,735.4	0.0	1,688,021.9	1.7
05	3,505,920.8	1.1	4,879,454.2	0.4	1,723,498.0	2.1
06	3,537,125.2	0.9	4,858,784.8	-0.4	1,773,435.7	2.9
07	3,543,543.4	0.2	4,756,207.2	-2.1	1,785,522.4	0.7
08	3,568,699.4	0.7	4,680,611.9	-1.6	1,844,498.3	3.3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변수명	자 료 명	단 위	자료기간	작성기관	자료출처
CN1	비농가취업자수	천명	90.1월~	통계청 사회통계과	KOSIS
CN2	산업생산지수	2005=100	90.1월~	통계청 산업동향과	KOSIS
CN3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005=100	97.1월~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KOSIS
CN4	전력소비량	1,000kwh	90.1월~	한국전력 충남지사	한국전력공사
CN5	수출액/수출물가지수	천불	92.1월~	무역협회/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CN6	수입액/수입물가지수	천불	92.1월~	무역협회/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 · 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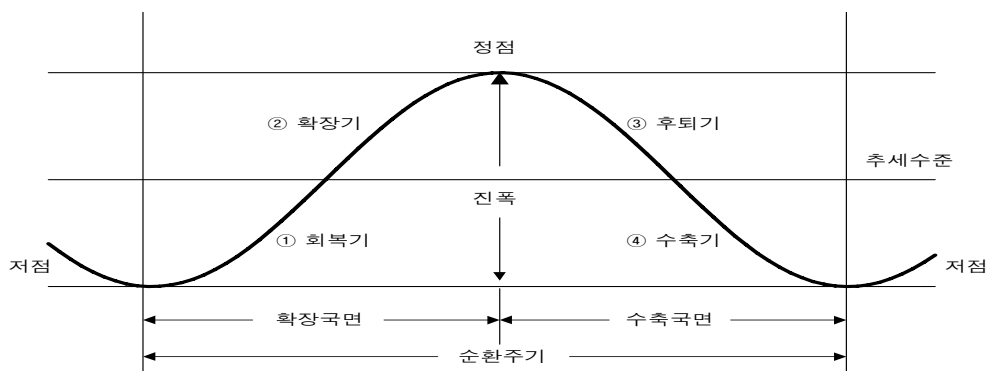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 · 동행 · 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경기 순환과정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률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률(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 (구성지표), $t = 2, 3, \dots, T$ (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률($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text{ (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률($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률(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률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률(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2011년도 충청광역경제권 그린반도체 인프라 활용 및 제품화사업

- 대 상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과제 선정기업
 - 신 청 : 2011. 10. 10(월)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 (재)충남테크노파크
 - 지원분야
 - 충청권 내 지역특화센터, 연구소, 대학 등에 구축된 인프라 활용지원
 - 인프라 활용을 통한 장비 및 부품 시험분석, 성능 및 신뢰성 확보 분석비용 등
 - 지원금액 : 건당 최대지원금액 22,500천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기술사업팀으로 문의(041-589-0638)

고교 취업담당교사 대상 우수 기업 설명회

- 때 · 곳 : 2011. 11. 23(수) 14:00 / 온양그랜드호텔
 - 대 상 : 충남 우수기업 10개사, 고교 취업담당 교사 30여명
 - 내 용 : 기업별 홍보, 채용절차 및 직무내용 설명, 질의응답 및 교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041-539-4565)

2011년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

- 때 · 곳 : 2011. 11. 30(수) 14:00 / 충남경제진흥원
 - 모 집 : 2011. 10. 17 ~ 11. 11(선착순 20개 社)
 - 내 용 :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 1:1 상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041-539-4542)

특허 3D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 대 상 : 특허기술을 보유한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금액 : 300만원 내외
 - 신 청 : 2011. 10. 14(금)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041-558-5707)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우수사례 공모

- **분 야** : IP 경영 일반기업과 스타기업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IP R&D, IP 경영 컨설팅 등
- **당선자 포상** : 표창 9명(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차년도 사업 우선 지원
- **신 청** : 2011. 10. 14(금)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041-558-5707)

2011년 기술투자촉진사업 IR멘토링 지원사업

- **지원분야** : 투자유치 컨설팅 및 IR 멘토링
- **지원대상** : 충남에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둔 기업 중 투자·자금 유치 희망기업
- **신청자격**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개인
 - ※ 충청남도 지정 강소기업, 유망 중소기업, 선도기업 선정시 우대
- **지원사항**
 - 재무·경영·마케팅 등 전략수립 컨설팅, 투자유치·자금확보·IPO 등 상장전략 수립
 - 투자유치전략 교육, 전문 투자기관 및 자금지원기관 네트워킹, IR설명회 참가
- **신 청** : 2011. 10. 17 ~ 10. 24 / 충남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등기우편·방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기술사업팀으로 문의(041-589-0637)

2011년 충청남도 무역의 날 「수출탑」 시상 공고

- **신청대상** : '10년 연말 기준 수출실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업체
- **접 수** : 2011. 10. 11 ~ 11. 10 / 도 및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 **제 출** :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증빙서, 본사 사업자등록증, 수출신고필증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도청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297)

2011년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운영기간** : 2011. 12. 6 ~ 12. 8 / 부여 롯데리조트
 - **해외 바이어** :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등 10개국 40명
 - **신청자격** : 충남도내 본사·공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지원사항** : 참가비 및 통역비
 - **신 청** : 2011. 9. 27 ~ 10. 4 / 도 및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도청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297)

2011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모집

- **분 야** : 공예품, 문화상품, 관광기념품
 - **선정자격** : 정부 공식 품질인증마크 부여 공산품·인증업체, 충청남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지정식품
 - **지원자격** : 충남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 **신 청** : 2011. 10. 18 ~ 10. 31 / 충남문화산업진흥원(woogi@ctia.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문의(041-620-6409)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0. 1월호

2010년 충청남도 산업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충청남도 권희태

2010년 경제전망 산업연구원 강두용

GRDP로 살펴보는 충남경제

충청남도 조한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0. 2월호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

한남대학교 정상은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과 통상전망

충청남도 이재관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2010. 3월호

청년실업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미래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및 고용지원사업

대전지방노동청 고복현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0. 4월호

3D 홀시대의 개막, 입체영상 '다가온 미래'

디지털타임즈 이근형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경희대학교 장진

녹색성장, 그리고 그린전기차

충남테크노파크 이덕규

2010. 5월호

문화산업, 감성형 융합콘텐츠 시대로의 이행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설기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무령왕의 재발견

공주대학교 정재운

백제금동대향로의 부활 "서기행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동연

2010. 6월호

충남 산업의 고품질 유희유, 디자인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브랜드 전략방안

그린나라 조용진

국가 디자인 정책과 주요 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영선

2010. 7월호

충남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육성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1년 365일, 축제 한마당

건양대학교 지진호

충남 생태관광의 지향점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2010. 8월호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한남대학교 정상은

최근 경제동향과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0. 9월호

성공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 김양중 · 송두범
DTI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0월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미·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공주대학교 남수중

2010. 11월호

전자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한서대학교 이영훈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정재호 ·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2월호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과 2011년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2010년 충남의 주요 경제이슈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김양중 · 송두범 · 김경태

2011. 1월호

2011년 충청남도 경제도정 운영방향

충청남도 권희태
충남 일자리 공시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1. 2월호

2010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김윤아
충남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3월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권오창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4월호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 분석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정운성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이재현

2011. 5월호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효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과 향후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6월호

FTA의 영향과 대응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충남의 항만 물동량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7월호

SNS의 성장 잠재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역할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의 필요성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1. 8월호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1. 9월호

지속가능경영의 이해와 효과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충남의 지식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살아숨쉬는 자연의 편안함

www.woorihwangto.com

황토숨 & 자연휴

황토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순면과 황토, 천일염, 생콩을 섞어 잘 반죽하여 염색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실을 하나하나에 황토입자가 스며든
황토원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우리황토는 언제나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듭니다.

(주)우리황토

본사.공장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239-15
소비자상담실 : 080-000-5678